

제423회 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8일(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참고인 채택의 건
-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                                          |   |
|------------------------------------------|---|
| 1. 참고인 채택의 건 .....                       | 1 |
| 2.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 | 2 |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이거 해 놓고 합시다. 참고인 채택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1. 참고인 채택의 건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하여 중인 출석요구를 의결한 이후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추가로 합의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철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재홍 한국신용평가 대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표,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5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5인을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2.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10시05분)

○위원장 윤한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요구된 일반증인은 5명입니다. 1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광일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서 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일 증인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광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정무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증인 김광일

증인 조주연

증인 금정호

증인 강경모

○위원장 윤한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아까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니까, 제일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홈플러스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현재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경영 파탄에 이른 데는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직전에 받은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저희가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지난 11일 날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3일에 중국지사, 홍콩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고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17일부터 19일까지 출장을 잡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는 다른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됐어도 불출석한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위원회 명의로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마치……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1분 더 드려요.

○柳榮夏 위원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약탈적 M&A를 하는 이 헤지펀드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저는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1일 날 위원회가 불렀는데 이 불출석사유서에 보면 13일 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회 경시를 넘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토종 사모펀드라고 강조해 놓고 정작 국회에 나올 생각도 없고 명백하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고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하면 여야가 다 같은 이야기 해 놓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MBK 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단순하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지금 특허나 소상공인이나 모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조금 더 드려요.

○강훈식 위원 차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한다면 그런 문제야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모두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유영하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발과 아울러서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김병주 회장이 거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김병주 회장님께서

해외출장 때문에 국민들의 매를 벌고 있는데요. 이 MBK는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그 약자입니다.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주인 파트너 부재훈 대표는 김병주 회장의 여동생 남편입니다. MBK의 실질적 오너가 김병주 회장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흠플러스 인수자금도 7조 2000억 중에서 5조를 흠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조달자금이 2조 2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당시에 2년 내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MBK에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분 더 줘요.

○민병덕 위원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듣도 보도 못한 갑작스런, 3월 4일 날 12시 3분에 신청했는데 3월 4일 날 10시에 재판하고 11시에 결정이 나 버리는 이런 황당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주 회장의 태도, 산자위 국감에도 출석 거부했었고요 오늘도 거부하고 있는데 김병주 회장의 태도와 이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MBK 청문회를 따로 날을 정해서 저희가 해야 될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같은 내용이면 안 하시는 게, 국회 생방송 중인데 세 분이 다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

○김현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현정 위원 흠플러스에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흡플러스가 2월 28일 날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고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실제로 회생절차를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회생절차를 준비할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도 선임하고 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짧게는 1~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불과 사오일 정도 준비하고 3월 4일 날 신청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플러스 측에 변호사 선임계약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생절차 진행 시점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흠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의결한 3월 3일 이사회 의사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한홍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저도 유영하 위원님과 강훈식 위원님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같

은 마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불출석사유서 세 번째 페이지인가를 한번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귀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자기가 답변할 방법까지 정합니까? 이미 저희들이 이 현안질의에 중인 채택했던 사람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서면으로 하겠다는 등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조치 그리고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됨과 동시에, 이미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김광일 부회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 아연 문제와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기간산업에 이러한 사모펀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또 한 번의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1면 톱으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더 심각하게 오늘 질의하고 청문회를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요청입니까? 자료 요청만 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이강일 위원** 좀 다른 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한홍**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신장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신장식 위원** 흠플러스는 3월 4일 날 00시 03분 심야에 소위 선제적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사실상의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 갚을 능력이나 돈 갚을 의지 없이 돈 빌리는 것이 사기죄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과의 협의 과정이……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신청 후 1시간 만에 회생 결정 나는 것 처음 봤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회생결정 바로 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법원과의 사전협의 과정 없이 회생 신청을 한다는 대기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등 이 회생 신청과 관련된 법률상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넣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자료 요청만 하세요.

○**신장식 위원**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해서……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자료 요청만 빨리 하고 마무리하세요.

○신장식 위원 자료 요청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앞에 서술이 길어서 그렇지.

1분 더 드려요.

○신장식 위원 자료 요청하는 중입니다.

왜 필요한지,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약 등 법률자문 관련된,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법률자문 자료 일체 그리고 실제로 회생법원에서 1시간 만에 결정한 회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까지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법원과 홈플러스 양쪽의 회생 신청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계약과 결정 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양측에 요청드리는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고요.

○김현정 위원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들 마무리하고 갑시다.

○김현정 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조용히 있는 사람은 왜 한 번도 안 시켜 줘.

○위원장 윤한홍 아니, 같은 내용이잖아요.

○김현정 위원 아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현정 위원님은 했잖아요.

○김현정 위원 아니,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것은 소관 기관장이 계속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돼서……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건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시면 돼요.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고.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생방송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강일 위원님 1분 드리세요.

○이강일 위원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라고 해요. 사실은 해지펀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을 해지시키는 해지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사냥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영업 안하고 있거든요. 건전한 시장경제를 망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파괴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적인 혼란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한테 더 논의해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제 의사진행발언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간사님들 마무리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오늘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MBK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번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관

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청문회 개최까지 다 포함해서 여야간,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과 상의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분노가 지금 여야 의원님을 떠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습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 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종기에서 고름 터지듯 김병주와 MBK 파트너스의 변칙에 가까운 차입매수 그리고 과도한 핵심자산 매각, 기업회생을 가장한 기업사냥하고 도륙하고, 탈법과 불법에 가까운 경영 관행 등 악행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가 12조 80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국회에 나올 때까지……

○**위원장 윤한홍** 1분 더 드려요.

○**강민국 위원**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해 주시고 또 홈플러스 측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금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김현정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현정 위원님 1분 드리세요.

○**김현정 위원**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2월 2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이사 갔냐고 물었습니다, 계엄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태 자료 제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근태 자료 여태껏 제출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사 가지 않았는데 이사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안질의에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왜 주소 이전 안 했느냐고 하면서 또 물었는데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금감원장님, 자료 제출하시면 되지요. 근태 자료 제출하시면 되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마 자료 제출을 해 드렸는데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세요.

이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안질의는 각 기관별로 준비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영업 관련 상거래채무는 정상 변제하도록 결정하였는바 현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입점업체의 피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긴급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납품·입점업체와 소비자 관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무는 총 3791억 원이며 그중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환불·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명령 등 조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홈플러스 기업회생 개시 동향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유동성 부족 우려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 당일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상거래대금 등은 지급하는 사업계속 포괄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채무 변제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조기변제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상거래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는 입장으로 상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향후 홈플러스는 채권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쪽, 홈플러스 현황입니다.

홈플러스가 제공한 25년 1월 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말 기준 총자산은 약 9조 원, 총부채는 8조 5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35% 수준이며 24년도 영업적자는 2000억 원입니다. 2월 말 기준 임직원은 약 2만 명이며 협력업체 수는 5900여 개로 추산됩니다. CP·단기사채·유동화부채 판매 규모는 약 5900억으로 그중 개인은 약 2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 측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입점업체, 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염중히 예의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대금 지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만큼 위법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보고와 같이 금융위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부토건 조사 건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중요 사건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였고 한정된 조사 자원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거래소 통보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실 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자동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 추적 등을 통한 거래 연관성 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관련 법규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는 점 등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안질의 시간에 보다 충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주가가 2개월 동안에 5배가 급등한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과거 5년 치 거래량의 80%가 거래됐고 2대 회장이 관여됐다는 정황도 있고, 거기에 외교정책까지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 정도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민 위원**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본시장 조사업무 프로세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결과 보고한 사건 중에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검찰로 보낼지를 판단합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 조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일반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중요 사건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로 넘기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판단합니다.

○**한창민 위원** 지금 금감원장이 기자들한테—언론 보도에 따라 가지고 나온 것으로는 ‘대주주 그리고 그 관계인이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처음에는 긴급·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더라도 처음에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단독조사 또는 공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 중에도 이런 새로운 사실이나 중

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금융위원장님, 이 사건도 인지사건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정무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주요 기사가 나오고 의혹 사건이 커져 가지고 요청해서 어찌 보면 그때 진행된 사안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나 대통령 부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의혹까지 제출된 마당이고 관련된 추가조작범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특히 이 사건은 국가기관 외교 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던 것 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금감원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장님도 이 사건 초기에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 와중에 이것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하고 지금 같은 의견이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위나 검찰 등 기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서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내부 절차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들을, 금융위·검찰과의 구체적인 사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건, 2023년에는 27건, 2024년에는 11건, 금감원에서 단독조사 중에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안들과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서 현안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중요 사건으로 생각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19조에 보면 실제로 도주, 증거 인멸이 예상되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14일 단톡방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한 이후에 꽤 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오늘은 시간을 자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첫 질의는 5분으로 그냥 가고 추가질의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오늘은 전부 똑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첫 질의는 5분으로 딱 준수를 하시고 추가질의 때는 제가 시간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마무리하세요.

○한창민 위원 금감원장님은 지금도 그러면, 이 사건을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언론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전히 일반 사건처럼 그대로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 검찰과……

○한창민 위원 아니,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 그런데 마무리하려면……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마무리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찰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아직도 그러면 공동조사나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위원장 윤한홍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첫 질의는 5분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추가질의 때는 제가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그대로 이어서 물을게요.

삼부토건 조사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감원이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 알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민병덕 위원 그랬더니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시스템을 존중하며 문제가 있으면 걸러졌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다음에 이것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님, 심리보고서를 넘겨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지금 강력하게 조사 진행 중입니다.

○**민병덕 위원** 언론에서, 이해관계자들이 100억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언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보도 경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병덕 위원**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어떤 경위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민병덕 위원** ‘다만 불공정거래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계좌 간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것도 조사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민병덕 위원** 거기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에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병덕 위원** 조사를 안 한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수많은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점검 중입니다.

○**민병덕 위원** 점검 중이라는 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이상하다고 혐의 있음으로 자료가 왔잖아요. 자료 와서, 지금 여기서 파악한 것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한 것은 확인하셨고. 그러면 그다음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인물은 이해관계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익 실현이 확인됐으면…… 제가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허위정보를 인식시켜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킨 이 사례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계좌 관련성이라든가 인물들의 여러 가지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민병덕 위원** 조사 중이에요? 6개월 동안 계속 조사 중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6개월 동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오늘 노컷뉴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 ‘악재성 공시 직전에 수십억 원 주식’ 이런, ‘내부 관계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조사 인력이 몇 명이에요?

제가 거기 직원 국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부·팀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정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많은 조사 인력을 투여하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말만 상당한 인력이지 지금까지 한 명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 조사1국이 제일 주력 거기인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 유능한 팀장이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있고 인력들은 계속 중간에 중원한 바가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지금 강제수사할 수 있습니까? 혐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원희룡이 데리고 갔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데리고 갔잖아요. 이종호, 추가조작했던 그 계좌관리인이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휴대폰·컴퓨터 조사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희룡 장관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민병덕 위원** 원희룡 장관이 거기 데리고 갔잖아요.

이종호 조사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민병덕 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모든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차관이 삼부토건을 직전에 만났고 삼부토건을 폴란드에 데리고 간 사람이 원희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사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민병덕 위원** 핸드폰·컴퓨터 이걸 조사해야 그 연관성이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조사 안 했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대상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민병덕 위원**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에서도 현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작 드러났는데 휴대전화나 컴퓨터 암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 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본인 계산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점이 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계산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민병덕 위원** 위법성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래서 정말 광범위한 계좌를 보고 있는 이유가 위원들께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 계산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관련자 간의 연결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강제조사가 필요한데 금감원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강제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SM 사건도 그렇고 SG 사건도 그렇고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진행해서 여러 사람들 다 밝히고 심지어 엄한 추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민병덕 위원 이 중요한 사건을 거래소에서 온 것 외에 특별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강제수사로 넘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훔플러스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MBK 김병주 회장은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MBK 김광일 부회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병주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두 번째로 많은 분이지요?

○증인 김광일 나가서……

○위원장 윤한홍 이쪽 왼쪽 편으로 나오세요.

○강훈식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증인 김광일 말씀하십시오.

○강훈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김병주 회장, 우리나라에서 돈이 두 번째로 많은 분이지요?

○증인 김광일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것 모르세요?

○증인 김광일 잘……

○강훈식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두 번째로 많아요.

○강민국 위원 부회장이 그것도 몰라, 부회장이?

○강훈식 위원 훔플러스 관련해서 국민들은 기업회생절차를 변칙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회생 직전까지 개인에게 어음과 채권을 판매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훔플러스는 부인하는데 2015년에 훔플러스 인수 이후에 고용 인원이 1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광일 그렇게까지 준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에 2만 6400명이었는데 지난해 2만 명 정도로 해서 6500명 줄었고요 그리고 간접고용 직원까지 하면 1만 명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니요’로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증인 김광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산업의 고용이……

○**강훈식 위원** 부회장님,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NG생명 매각과 관련해서 당시에 10년 이상 장기 경영,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는데 6개월 만에 임원의 56% 해고하고 평직원의 30% 감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김광일** 수치는 정확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강훈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시면……

○**증인 김광일**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감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 부분 조기 희망퇴직은 인수 전부터 준비돼 있던 것으로……

○**강훈식 위원** 롯데카드도 여쭙겠습니다. 2019년에 인수해서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는데 2023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규모 차입금 떠안고 인수했는데 적자전환 23년에 됐습니다.

케이블TV 씨엔앰,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매각에 실패한 거지요.

철강구조 전문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 2016년 법정관리 신청했습니다.

BHC, 알짜자산 점포 매각해서 치킨값은 올리고 이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기업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식 위원** 노동자들은 자르고 알짜점포는 팔고 치킨값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MBK의 실체입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님도 계시지요. 잠깐 이쪽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지 말고 계세요, 부회장님.

신용등급 A3에서 A3-로 하락하는 기업 중에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 신청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없지요.

이것 책임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요?

○**증인 금정호**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흠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A3와 A3- 신용등급의 단기자금 조달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금정호** A30에서 A3-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회생 신청을 바로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A30도 투자적격 등급입니다. BBB 기업들인데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채권시장에서 다들 힘들게 보내게 되는 거지요?

○**증인 금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셨어요? MBK가 시장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 같은 등급, A3만 돼도 사업할 수 있는데 회생 신청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의 A3는 다 부도나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습니다.

국민연금이 흠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어영부영하실 생각이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한국 경제, 시장에 미친 영향과 파장이 얼마나 큼지 정확하게 답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이복현 원장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돼 있다, 가능성의 의심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복현 원장님께서 자꾸 신중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단정 짓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주가조작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의혹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정치적 인물이 관여됐다는 것만으로 그 인물의 혐의를 단정하는 식의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명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접견한 게 다예요. 그런데 자꾸 신중하게 대답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상소설 쓰듯이 이것을 묶어 가지고 엮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국내 2위 대형마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마트고요. 어느 지역이나 동네에서도 사랑받는 마트다 보니까 영업이 잘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도 많이 받는데 왜 갑자기 회생 신청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을 넘어 가지고 먹튀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홈플러스 인수했는데 7조 2000억 원에 인수했네요. 맞나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인수한 금액은 6조입니다.

○강명구 위원 인수 이후에 점포 열다섯 군데 팔았네요. 매각대금이 1조 86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증인 김광일 열다섯…… 숫자는 정확지 않은데 맞습니다, 규모는.

○강명구 위원 당시에 무리한 인수였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알짜점포들까지 다 팔아서 매각대금 다 챙기고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회생 신청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정말로 홈플러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광일 회생 신청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마트 매출만 1조가 줄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요. A3-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기업어음입니다. 그래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강명구 위원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요?

○증인 김광일 예.

○강명구 위원 저는 왜 다른 방식이 아닌 꼭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선택했는지 궁금하고요. 이미 2월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한 MBK가 회생절차도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회생에 앞서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기업어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까지 발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홈플러스에 수많은 협력사, 입점업체 점주분들, 2만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직원들 계시잖아요. 사전에 회사에서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경영진이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우리 같이 노력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정상화할 수도 있다라고 서로 고생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MBK에서 판단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뭐니까?

○증인 김광일 A3- 등급 기업어음이 거의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이 상환 요구가 들어옵니다. 3개월 내에 부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고요, 거래처랑 직원들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에 넣고 채권자들하고는 별도 협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강명구 위원 MBK 파트너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협력사, 점주들, 직원들, 고객들,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MBK 파트너스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절차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이복현 원장님, 언론 보도 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 가지고 부정 거래 의심 규모가 한 100억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부토건 외에도 동일인 회사인 웰바이오텍이 있는데 거기도 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한 4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된, 웰바이오텍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인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김현정 위원** 한다는 얘기군요?

PT 좀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 이일준 회사 지배구조도 보시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김현정 위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디와이디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일준 회장이 웰바이오텍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삼부토건과 디와이디하고 웰바이오텍이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쳤어요, 같은 날.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의 재건 관련해서 포럼에 참석했던 날인데 그날 저 삼부토건 대표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 대표도 그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다 동일인 회사고 관계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일준 회장 아세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들어는 봤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업사냥꾼이고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수석 부회장도 하셨고, 저 사진은 우크라대사관 가서 평화기금 쾌척한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PT 한번 보세요.

왼쪽이 삼부토건 주가 차트고 오른쪽이 웰바이오텍 주가 차트입니다. 너무 똑같지요? 이게 5월 14일 날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한 뒤에 두 달 사이에 1000원짜리가 7월 17일에 5500원 최고점 찍었던 것이고, 오른쪽의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000원짜리 주식이 오히려 삼부보다, 열흘 정도 뒤에 5200원까지 다섯 배 뛵니다. 시작과 끝이 아주 닮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웰바이오텍 대표가 원희룡 장관의 포럼에 참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일한 지배구조 내의 관계회사가 같은 우크라 재건 테마로 같은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저 주가를 보시면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삼부토건은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서 400원대에 거래 중이고 웰바이오텍은 500원대에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이 내용 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말씀……

○김현정 위원 둘 다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급등하고 폭락으로 이어지는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지금 삼부토건으로 해서 시세차익으로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 전환사채를 혈값으로 누군가에게 발행해서 400억대의 주가조작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 혈값 매각으로 400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제가 주장하려는 핵심 내용인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1일 날 공시 내용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공시 내용인데 평균 가 1056원, 1095원, 1537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8월 4일 날 1300만 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1200원에 CB를 발행했는데 그날 종가는 얼마였나 하면 삼천구백 얼마예요, 종가는 3920원. 3920원으로 2700원의 이익을 받고 판 거예요.

그다음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웰바이오텍의 시세차익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게 세 차례인데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71억 5000만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주가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 아까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웰바이오텍의 경영주가 바뀌었는데 그 경영주가 전 경영주를 대상으로 특경법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저 혈값으로 CB 발행해서 피해 봤다라는 그 400억, 저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금융위원장님, 여기 패스트트랙 규정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면 패스트트랙 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한번 규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정 위원 다섯 가지 사항들……

다음 화면 넘겨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개요, 저기 두 번째 보면 수사 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패스트트랙 사항으로 저기 규정에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께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 검찰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이 개별 건이랑 원희룡 장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현정 위원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관계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앞에서 먼저 설명을 그렇게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이복현 금감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삼부토건 추가조작 사건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 카르텔 범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종호와 김건희와 삼부토건 간에 연결된 카르텔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추가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종호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을 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삼부토건과 이종호와 당시 추가조작범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많은 증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카톡 대화나 이런 것을 보면 김건희가 ‘삼부 회장님과 우리는 가족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회장이 이종호의 아들을 구치소 좀 편한 데 보내 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진술 증거들도 그동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검찰의 모 검사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삼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종호와 김건희는 그동안 이런 친목관계를 이용해서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을 한 공범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 추가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추가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단지 추가조작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까지 그 배후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종호와 김건희와 삼부토건의 이 밀접한 관계는 여러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중매를 해 줬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때 이종호 대표는 작년 8월에 법사위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범의 공범인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기도 합니다. 그때 이종호가 VIP의 구명 로비를 했다 이런 카톡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와 김건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금감원장님, 이 사건이 지난해 7월에 법사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삼부토건 추가조작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 제기가 됐고 기사도 많았는데 왜 이때 금감원에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겁니까, 2024년 7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협의 단서를 포착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금감원이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보고서가 제출된 때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구체적인 조사 착수 시기는 확인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착수 시기는 이때라고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의혹이 세간에 제기가 된 것은 2024년 7월 당시 법사위 청문회부터 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서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금감원이 이때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한국거래소에서 이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니까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인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요, 손 놓고 있지 않았고 아주 바쁘게 조사를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때 법사위 이슈가 제기될 때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특정하여 조사 착수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이 삼부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법사위에서 ‘삼부 체크한다’ 이런 카톡 문자가 공개됐는데요, 2023년 5월입니다. 이때 이미 삼부토건 관련자들의 주가조작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부가 군 골프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골프에는 삼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게 명확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셨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의혹을 체크하고 있고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련성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산으로 계산된 게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정치인이 관련됐다고 해서 그리고 정치인이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당 정치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되게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는 것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잘못할 경우에는, 금감원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무리해서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균형 잡히게 지금 계좌를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길 건지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거의 저희가……

○위원장 윤한홍 그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똑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고발할 거다 이 정도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약간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임기가 6월 초인데 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왜냐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똑같은 질의가 반복이 되니까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지난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장님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시다가 작년 11월경에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주주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게 견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입장과 소신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예, 아니요’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혹시 말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돼서 금융당국자 입장에서 밝혀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미에 한 1~2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문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이정문 위원 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상법의 개정이 있었고 향후에는 자본시장법도 상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문 위원 잘 안 들리네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따 말미에 답변해 주시고.

저도 삼부토건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복현 원장님,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요.

금감원이 삼부토건 사건을 들여다본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일종의 중간보고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었던 거고요. 금감원이 제대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 이런 내용 또는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200여 개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정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는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시장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말씀드리기 조금……

○**이정문 위원**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이거는 맞아요? 이 정도도 확인을 못 해 주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계좌가 과연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이종호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계좌가 있는지 혹은 이들의 직접 계좌가 없다면 이들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가 있는지 이런 것 등인데 혹시 이것이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으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통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넓게 계좌를 보고 있고 계좌 관련성을 보고 있다는 것을 좀 해석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협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출석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지금 충실히 밟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사후에 어차피 저희도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큰 책임을 진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감원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 특검법이 발효가 된다면 이 부분에 금감원의 어떤 업무 집행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징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소신 내용 한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한 걸레 길이 아니라 두 걸레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정말 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정도 야당 측에 아쉬운 것은 조금 위험한 도로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가드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승객들한테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엑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기업과 재계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도 좀 아쉬운 마음은 실제로는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거라서……

물론 그것도 양측을 잘 설득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지시를 저희한테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저희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그리고 21대 국회 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노력을, 최근에 논란이 된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 왔던 이슈인 거고요.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양자를 다 검토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력 안은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가까운 안이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걱정·우려를 어느 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보다 좀 안전하고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정부 내 의견이 수렴된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는 게 되게 불편한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로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또 위험한 도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들한테 같이 주의를 당부한 다음에 빨리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결국은 시장의 틀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든가 성장, 효율성의 담보라든가 경쟁 환경 조성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쟁 결과에 승복을 하려면 둘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짧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되게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사위에서 고생하셨을 법무부 김석우 차관님이라든가 유상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스럽고 권영세·권성동 대표님께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자본시장 선진화 이슈를 저희 목소리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간곡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금감원장님께서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직을 걸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위원장 윤한홍 본인이 이 업무의 해당 라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과도한 발언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이제 상법은……

○위원장 윤한홍 직을 어떻게 걸어요?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중하시잖아요.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라고 다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조심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이든 그 법에 대한 업무를 직접 핸들링하는 라인에 있을 때는 그 표현이 맞는데 그 업무를 직접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니에요, 금감원장님은. 그런데 직을 걸겠다 그런 표현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다.

오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드렸어요. 그렇지만 평소 행동하고 다른 행동이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문제, 자본시장 개혁 문제가 노동·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직을 걸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자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법은 법무부 법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저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우선인가요, 금감원장이 우선인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늘 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이야기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송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일을 하는 방법이…… 삼부토건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는 답변은 뚜렷하게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려야 될 부분은 가리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국내 유통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관련 업계를

비롯한 그 종사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안 좋다면 위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자구노력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회사채를 팔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현재 상황은 그동안 김병주 회장의 MBK 파트너스가 보인 행태를 보면 당연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7조 4000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2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점포를 매각해 왔습니다. 유통하는 기업이 점포를 매각한다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는 결국 제2의 티메프 사태에 버금가는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납품업체와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등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 김병주 회장은 오늘 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달랑 두 쪽짜리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11일 날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18일 오늘 회의에 나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절묘하게도 어제 출국해서 내일 입국하는 일정표를 보내 왔는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비행기 티켓을 3월 13일 날 티케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결국 국회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안이함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MBK와 홈플러스의 책임을 명백하게 따져 가지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납품업체들 입점업체들 대금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유통업체들 정산주기를 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20~30일인데 홈플러스는 정산기일이 45~60일 정도로 다른 사 대비 최대 3배 정도 긴데요.

작년에 티메프 사태 때 공정거래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들 정산주기를 조사를 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 좀 제도적 보완을 했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당시 티메프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쪽에 집중을 했고요. 말씀하신 전통적인 유통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산주기를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도 정산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흠플러스 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겠습니다.

현재 납품업체·입점업체 피해 현황하고 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을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현재 흠플러스에서는 자금을 6000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위가 지금 그 납품대금 정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일단 중소·영세 납품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흠플러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흠플러스에서는 정산을 자신하고 있지만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월까지 순차적으로 정산할 예정이고 또 입점업체 중에서 브랜드 본사와 계약한 입점 가맹점은 4월에야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그 정산을 받더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정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납품업체들에 대한 흠플러스의 갑질 행태도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데 신상품 입점장려금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압박이 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일대일, 1+1 기획상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비용들은 전부 납품업체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입점장려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유통업자에게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 판촉 행사와 관련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흠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5분 끝나면 금감원장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사기판매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먼저 회생채권으로 이 채권이 뭉이게 되면 일단은 전부 변제를 못 받고 대부분 상당히 감액되지요. 보통 한 30%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당장 받는 게 아니라 7년, 10년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불이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채권을 살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이 채권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사기판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를 하다 들어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2~3일 내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27일 날 신용등급 하락이 됐는데 그걸 연휴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3월 4일 날 신청했다? 이건 법률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달, 1월로부터 준비를 했거나 적어도 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월 것만 보더라도, 저 표에 나와 있듯이 1518억이나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사기가 되는 거지요, 회생절차를 준비해 가지고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변제 못 받을 걸 알면서도 팔았으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25일 날 한꺼번에 820억 원을 팔았어요, 신용등급 하락이 27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거 알면서도 25일 날 밀어내기식으로 급하게 많은 금액들을 판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계다가 전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년 12월 달에 한 203억 팔았는데 2024년 12월 달에는 1128억 팔았고, 작년 1월 달에는 420억이었는데 1373억, 작년 2월 달에 359억이었는데 1518억 원이나 팔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채권들을 전년에 비해서 팔았다는 것은 이미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채권들을 대거 팔아 가지고 자금조달을 미리 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판매라는 의심이 드는 거지요.

다음 장 넘겨 줘 보세요.

다른 데들, 신용등급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한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일 짧았던 데가 웅진이었는데 2개월 걸렸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돼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 가지고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게 2개월 3개월 걸렸다는 거거든요, 다른 자구노력 같은 거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걸 2~3일 내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를 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증권하고 홈플러스 관계에 있어서 신영증권 입장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채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매년 1000억 2000억씩 적자를 내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채권을 파는 거였어요. 이게 일반 투자자한테 팔 수 있는 채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일반 투자자들한테 대규모로 채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려려면 더더욱 홈플러스의 신용 상태를 점검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했나. 바로 이를 보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가지고 난리가 날 상황이었는데 이걸 신영증권이 모르고 팔았다는 건 도저히 믿기가 어렵고, 아마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영증권 측에서 홈플러스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제가 증인 신문을 할 건데 고발하려는 이유가 뭔지도 정확히 신영증권 측에서 밝혀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 줘 보세요.

이분들, 산 분들에 대해서 어제께 피해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가 다 날려 가지고 월급과 월세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오열하신 분들도 있고, 노후를 걱정해 가지고 퇴직금을 받은 건데 이거 투자했다가 지금 다 날리게 돼서 노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전세계약 관련된 돈인데 이걸 날리게 됐다, 자녀들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혼자금인데 날리게 됐다.....

보면 다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한테 이런 위험한 채권들이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홈플러스는 사기판매를 하고 신영증권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도 지금 CP나 AB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를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금감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도 금융위원장님 지시 받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측면의 현황을 파악을 했고 파악 중이고, 신영증권이라든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이미 착수한 바가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법률적 이슈에 대한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후 검사·조사에 반영.....

○**김남근 위원** 불완전판매로만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보통 50% 감액되고 이렇게 피해 변상을 받는데 사기판매면 100% 변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판매냐 불완전판매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사기판매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쟁해결 이슈라든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홈플러스·MBK 관련해 가지고 상거래채권이나 직원들 문제, 이런 입점업체·납품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MBK 쪽에서 대책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신 ABS 문제 또 신영증권 불완전판매—이거 금융채권이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김광일 MBK 부회장님, 지금 홈플러스와 관련된 MBK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 잘 들으셨지요?

○증인 김광일 예.

○김병기 위원 김병주 회장한테 가서 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부를 때 꼭 나오라고 그려세요. 저희가 예우해 드릴 때 나오시라고, 끌려 나오지 마시고. 괜히 자동차 피하려다가 전차에 깔리지 마시고. 여야 위원들이 잘 합의 안 하는데 합의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꼭 전해 주세요.

○증인 김광일 예.

○김병기 위원 금융위원장님이랑 금감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홈플러스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저희가 물어보면 자기들이 봐도 왜 이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참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흔하지 않은 방식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들의 모럴 해저드, 물론 국회와 정부가 보다 세밀한 그물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촉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두 분 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병기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금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두 위원회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위탁경영하는 자금운용사들 중에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이나 금감원장님, 혹시 사모펀드 중에서 MBK와 KKR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금감원장님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사후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MBK와 KKR이 한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벼랑 끝 대치를 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MBK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외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CJ 바이오사업부 인수 등 금융권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파장과 피해를 끼치고 있고요.

지금 MBK만 저희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MBK보다 KKR이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이미 태영이랑 에코비트로 한번 그런 전력도 있고요. 어떤 면에선 KKR이 화살을 MBK로 돌리면서 영리하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모벤처투자실이나 부동산투자실은 ESG 스코어 모니터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지요? 국민연금이 가치 훼손적 경영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해당 펀드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병기 위원**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투자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자금이 가치 훼손적 경영을 이어 가는 사모펀드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금 굉장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감위원장님, 금융감독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사모펀드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되겠다, 제도개선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에 특정을 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운용하는 국민연금 쪽의 어떤 팔러시(policy)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특정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랑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MBK 이 건에 대해서는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라든가 순기능 내지는 생태계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것 조치계획이나 시행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국민연금 기금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저리로 나와 주시지요.

국민연금이 새로운 이사장 오셔 가지고 지금 한 1200조 정도 늘었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 기금본부장님이 보시다시피 MBK의 이런 부도덕성, 기업을 사냥하는 하이에나 같은 행태를 오늘 잘 듣고 계시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듣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 홈플러스 그게 MBK 사모펀드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민연금에서 얼마 정도 투자하셨어요?

○참고인 서원주 2015년도에 정확하게는 61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RCPS로 5826억을 투자했고 보통주로 29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다음에 MBK와 계약할 때 9% 이율로 했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가 얼마 됐어요?

○참고인 서원주 전체적으로 RCPS의 원금 942억과 이익금으로 회수 금액으로 2889억, 토텔해서……

○강민국 위원 그러면 9%로 치면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였습니까, 국민연금이?

○참고인 서원주 중간에, 9%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13%로 스텝업이 됐는데 그걸 포함하게 되면 현재 그 공정가치 평가……

○강민국 위원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참고인 서원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9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90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참고인 서원주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그 외에 MBK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총금액이 얼마예요? 사모펀드 말고.

○참고인 서원주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2011년부터 국민연금이 MBK하고의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1개 정도의 펀드에 투자를 해서 한 2조 정도 출자를 했고 1조 3000억 정도를 회수했던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요. 맞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훙플러스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은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입니까, 안 내시는 분들입니까?

○참고인 서원주 다 내시는 분들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 국민연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중요한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적대적 M&A를 하는 그리고 부도덕한 MBK에 대체투자를 한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서원주 위원님 말씀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강민국 위원 훙플러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국민연금을 내시잖아요.

○참고인 서원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연금을 받아서 적대적 M&A를 하는, 훙플러스를 망가뜨리는 MBK에 투자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참고인 서원주 저희들이 국민연금 투자 목적이나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또 투자할 게 있습니까? MBK하고 계약할 게 있어요?

○참고인 서원주 실질적으로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운용사 선정을 공정하게 하다 보니 MBK가 선정이 됐었고 그 투자자금으로 투자를 하기로 약정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이후로 다른 적대적 M&A 관련된 회사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올해 2월에야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투자할 규모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강민국 위원** 지금 상환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지요, 홈플러스에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참고인 서원주** 상환받는 방법 말씀입니까?

○**강민국 위원** 예, 상환받을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서원주**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잘 회생이 되고 여건이 잘되면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0억 가까이 날아가는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연금을 내는 홈플러스 노동자나 구성원들의 그 연금을 받아서 적대적 M&A의 MBK가 홈플러스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데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인 서원주**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강민국 위원** MBK하고 손절할 거지요?

○**참고인 서원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고 자산을 매각해서 기업에 성과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자산 매각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회사는 저희들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참고인 서원주** 예.

○**강민국 위원** 김광일 부회장 나오세요.

2015년에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에 인수하고 그중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홈플러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지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인수하는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은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인수하는,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복현 금감원장님,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사건은 원희룡 장관과 무관하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인물과도 연관성이 없다’. 그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면 김건희 씨지요. 그런데 지금 현안질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까 원희룡 장관 얘기한 건 그 위원님께서 다른 종목과 관련 돼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정치적 인물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누구 계산으로 했는지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계좌에 대해서 집중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건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특정 사건에서는 누구 계산인가가 드러난 상태에서 이슈가 제기된 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를 한번 만났다, 무슨 얘기가 있었다 정도기 때문에 누구 계산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만 위원** 금감원장님, 정치적인 인물이 어떤 사건에, 이게 금융이전 아니건을 떠나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감원장님께서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무관하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최종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건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게 특히 삼부토건에는 소액투자자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몇 프로인지도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소액투자자 비율이 아주 높고, 어쨌든 이런 유의 소위 개미들을 등친 사건은 저도 매우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일반적인 대표나 대주주 주식이 높지가 않고 92%의 소액주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을 생각해 보면 원래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 가지고 시세차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재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세차익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참 석연찮아요. 삼부토건이라고 하면 사실 부채 비율도 당시에 보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838%, 3772억 적자의 부실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서 1군의 대기업들이랑 같은 반열에 올라 가지고 갔는데, 사실 삼부토건은 원래 원희룡 장관과도 동행하는 게 아니었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갑자기 초대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23년 5월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삼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초청도 없이 한국에 방문하고 기재부가 갑자기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하겠다고 가서 명하고, 이게 다 4일 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들이 만남을 가지려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안 계셨어요, 3월 10일에. 얘기 들어 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 업무협약식 갔다 왔다, 그런데 그 전의 일정을 보니까 내부회의만 있었다고

부원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안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김건희 씨나 원희룡 장관과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빠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7개월 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무위원이 찾아가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도, 그 전에 내부회의 정도만 있었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시간을 조율해서라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말고 금융위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있어서는 22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위한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이 불공정거래가 감지가 돼서 바로 금감원으로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9월에, 저희들이 사건을 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인력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형태가 유사한 사건을 했는지 여부도 좀 봅니다. 보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당시 판단으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과거 배분했던 기준으로 봐서 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강제조사 부분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만약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든지 그런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의지적인 부분에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공동조사를 안 한다,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입니다만 기관 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정말 송구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정말 중기부랑 소상공인 행사가 미리 몇 달 전에 잡혀 있던 거라서 제가 안 가게 되면 아예 행사가,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계신 자리여서 그런 거고. 오늘 정무위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바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정무위 끝난 다음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간에 민주당 위원님들 찾아뵙고 경위도 설명드리고 사죄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타임테이블 보이시지요? 작년 7월 26일 금감원 의뢰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를 개시했다라고 해요. 저희들이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 삼부토건 관련된 이야기를 지적했고, 26일 날 시작을 했다. 맞습니까? 이상거래 심리, 작년 7월 26일.

○참고인 김근익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장식 위원 9월, 한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심리 종료하고 10월부터 금감원이 본격적인 조사, 현재 5개월째 조사 중인 거고요. 3월 4일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경영진의 100억 원대 시세차익 실현’ 보도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금감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 200여 개 계좌 보고 있다라는 후속 보도도 있었는데요.

시장감시위원장님, 시장감시위원장님 책임하에 시장감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근익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 시점, 시장 심리 시점이 23년 5월부터 7월 딱 이 두 달입니까? 이상거래……

○참고인 김근익 심리 대상 기간이요?

○신장식 위원 예, 심리 대상 기간.

○참고인 김근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장식 위원 5월부터 7월보다 더 넓어요?

○참고인 김근익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신장식 위원 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참고인 김근익 그 내용은 또 실제로 감독원 감시대상의 한 가지입니다.

○신장식 위원 언론에 한 200개 정도 계좌가 나왔다고 금감원발로 나왔어요. 넘긴 계좌가 200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습니까?

○참고인 김근익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드리기 곤란하고……

○신장식 위원 제가 200개까지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실은 이전에……

○참고인 김근익 확인이 곤란하고 실제로 넓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장식 위원 넓어졌습니까, 좁혀졌습니까?

○참고인 김근익 그건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신장식 위원 다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이것 보시면 원래 시장감시할 때 이상거래 의심 종목을 적출하고 그 이후에 이것 좀 이상하다 하면 주시하고 그리고 심리를 의뢰해서 시장감시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거지요?

○참고인 김근익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1년 전에 뭐 하셨어요?

다음 PT 보여 주세요.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삼부토건은 이상거래가 죽 있었어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근익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정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7월 26일경으로 확인되는데요.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상거래 심리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이상거래 심리한 적 없습니까?

○참고인 김근익 일반론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7월 26일부터 심리하셨다는 데 그 이전에, 이상거래는 1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상거래 심리한 적 있으시냐고요. 사실관계 ‘예, 아니요’만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근익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신장식 위원 아니, 삼부토건 얘기하시라고요.

○참고인 김근익 개별 사안……

○신장식 위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참고인 김근익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7월 26일 날 삼부토건 심리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게 삼부토건에 대한 최초의 심리입니까?

○참고인 김근익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드리기 곤란합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참고인 김근익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하기 전에 아까 나왔었던 시장감시 단계 또는 주시 단계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통상 아는……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단계에서 심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근익 그걸 심리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시장감시 단계.

○신장식 위원 주시, 감시하고 그다음에 심리하잖아요.

○참고인 김근익 그다음에 심리 단계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다음 보세요.

1년 전이에요. 이상거래 의심 종목으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특정된 적이 있느냐, 주시했느냐, 심리 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참고인 김근익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확인……

○신장식 위원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1년 전에는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못 했다라고 하면 시장감시위원장님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100억 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선택하세요.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우리는 유능하게 다 적출하고 감시하고 주시하고 심리 맡겼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다라든지 중단된 외압이 있었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감시위원장님, 무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참고인 김근익 저희가 더더군다나 지금 진행 중인 조사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충분히……

○**신장식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못 했으면 무능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 심리나 감시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부터 재설계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감시위원장은 직무를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있어서 1년이나 뒤에 심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 무능의 질타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그것 답변하시면 돼요.

○**참고인 김근익**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더구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말하기가 곤란하고, 저희 내용을 말하면 조사 내용 추측이 가능합니다.

○**신장식 위원** 무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시지요.

○**참고인 김근익** 죄송합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거래소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

1분 드리세요.

○**유동수 위원** 혹시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윤한홍** 앉아서 하세요.

○**유동수 위원** 앉아서, 자료 요구니까요.

혹시 기업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사회를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이사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LP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것은 신청한 후에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정보하고 좀 달라서. 보고한 게 있으면 보고 시점과 보고 자료, 그 자료도 줄 수 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인 김광일** 예,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유동수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2시 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금 같이 했잖아요.

○이강일 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강일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고 하세요.

○이강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홈플러스 2023년도 부채 비율하고 2024년도 부채 비율이 3200%에서 1800%로 줄었어요. 부채율이라는 것은 자본으로 부채를 나눈 거니까 모수나 자수에 큰 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모수 변경이 있는지, 자수 변경이 있는지, 두 가지 변경이 있는지, 뭐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를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홈플러스의 지점이나 점포들을 팔았는데요 매각대금이 어느 점포에서 얼마고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리스부채라고 하는 게 임대료를 말하는 건가요? 임대료 성격인가요? 2018년도에 570억이 폭증했어요, 연간. 이 폭증 사유에 대해서 좀 백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증인 김광일 마지막 질문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가능하면 주셔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증인 김광일 예.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원 위원 우선 공동대표인 김광일·조주연 두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 2013년도의 동양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단기채·CP 1700억 발행했다가 특경법상 사기죄로 회장이 징역 7년형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3월 4일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2월 25일 날 유동화 전단채 포함해서 단기채권 820억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2월 20일 날 전후로 은행들로부터 한 750억 차입해서 거의 대부분을 소진했더라고요. 그 금액만 봐도 벌써 1500억입니다. 형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불완전판매보다는 오히려 사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회생절차를 3월 4일 신청을 했는데 한두 시간 만에 개시결정이 나온 것도 의아하지만, 이거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증인 김광일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것을 4일 동안 그 연휴 기간 중에 로펌이랑 해서 그걸 마련했다고요?

○증인 김광일 로펌이 아니라……

○김승원 위원 그게 발급이 됩니까, 그 연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공적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본만 열세 가지고 총 오십 가지인데 2월 28일 날 신용 강등되고 나서 3월 3일, 연휴 동안 그게 발급이 됩니까?

조주연 대표,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이것 준비했습니까?

○증인 조주연 신용 강등이 확정된 이후에 긴급하게 저희가 임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증인 조주연 지금 김광일 부회장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면 회생 신청할 때 변제율……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소상공인부터 해서 입점주들도 있고 굉장히 피해자가…… 변제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 신청에 변제율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요즘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지요. 그렇지만 기업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회생 신청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입점주들한테 어느 정도 변제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최선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신청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단기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거고요. 저희 영업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소상공인, 납품업체 직원들 급여나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기업가가 전망도 안 하고 텔柯 그런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강훈식 위원님 말대로 A3 신용등급 단기채 시장 지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발행량이 예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월 달 들어서. 진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금 자금조달을 못 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김승원 위원 좋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이것 김병주 회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재 출연 규모·액수 얼마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대상 채권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리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증인 김광일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재 출연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김승원 위원 소상공인만요?

○증인 김광일 예, 그래서……

○김승원 위원 여기에 뚫여 있는 국민연금 6000억 어떻게 합니까? 신용보증기금,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관인데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여기 입점주들 계시는데 입점주들에 대한 반환채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하세요.

○증인 김광일 저희 홈플러스에서 믿고 또 목표하기로는 회생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들의 원금을 다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재 출연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증인 김광일 상거래부채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잔액이 많지 않고요. 비상거래채무가 2조 20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이 4조 7000억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만.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원금 다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승원 위원 그러면 왜 회생을 신청했어요?

○증인 김광일 그런데 3개월 내에……

○김승원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채는 2조고 자산이 4조라면 왜 회생을 신청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저희가 단기자금이……

○**김승원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메리츠한테는 왜 또 1조 3000억이나 빌려서 2025년 5월 달에 2000억 갚기로 했다면서요. 그것 안 되고 지금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법정관리 회생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일단 경매 막으려고, 우선이라도.

○**증인 김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기자금이 3개월물이라서 3·4·5월에 대부분의 자금이 돌아옵니다. 이것 못 막으면 부도가 나셔요.

○**김승원 위원** 오후에 계속 질의할 텐데 김병주 회장한테 사재 출연 규모, 그다음에 대상 채권들,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증인 선서한 것 몰라요, 증인 선서한 것?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

○**신장식 위원** 부회장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알로 보이세요?

○**위원장 윤한홍**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시니까.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1분 드리세요.

○**柳榮夏 위원** 지금 계속해서 김광일 증인이 또는 조주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회생 신청을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이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법원에서 3월 4일 날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4월 29일 날 삼일회계법인에 조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면 한 50일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인회계사분도 계시지만 회사도 미리 신청하기 전에 조사결과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했던 회생개시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생전문 변호사들—저희도 법조인이지만—기본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휴가 있었어요. 발급받지 못한 서류가 있어요, 연휴 때. 그 서류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경고하는데 증인 선서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좀 표현을 자제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영하 위원님하고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사재 출연 부분, 이 부분 아마 오후 질의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계속해서 지적하실 거예요. 그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두 분 잠깐 계시지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일시하고 또 실무적으로 준비한 일시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3월 4일 날 법원에서 개시명령을 받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그

전 연휴……

○이인영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게 3월 1일이라면서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은 그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광일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이사회 결의는 3월 3일에 했었고요. 이사회 의사록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다음 28일하고 3월 1일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 검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이인영 위원 아니,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만 확인해 주시면……

○증인 김광일 예, 서류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사회 결정도 없이 사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요?

○증인 김광일 시간이 촉박해서요 일단 서류는 서류대로 준비하고……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기업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네요?

○증인 김광일 그 전에는 미리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확인하면 27일 최종 확정이 되고 28일부터 그러면 실무적으로 준비한 겁니까, 이사회 의결도 없이?

○증인 김광일 28일, 3월 2일까지는 저희가 회생 없이 회사가 부도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이인영 위원 3월 2일까지는 그런 회생절차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았고 일단 3월 3일 날 이사회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의결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서류를 준비했다?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3월 1일 날 오후쯤 돼서 저희가……

○이인영 위원 뭐 그렇게 얘기가 자꾸 바뀌어요?

○증인 김광일 3월 1일 오후에 저희 임원들끼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 없이 실무적으로 막 서류를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준비했다고요, 2일부터 준비했다고요? 1일부터?

○증인 김광일 1일 날 저희들……

○이인영 위원 3월 1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지요? 공휴일이에요.

○증인 김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3월 2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3월 3일은 법정 대체휴일이에요, 월요일인데. 그러면 토·일·월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업무가 중단돼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떼야 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뗄 수 있는 서류가 구분돼 있어요. 그건 아세요?

○증인 김광일 제가……

○이인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른 날짜에 미리 뗐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증인 김광일 제가 제출한 첨부서류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인영 위원 그걸 왜 모르지요?

○증인 김광일 법인등기부 정도 외에는 회사에……

○이인영 위원 아니, 기업회생절차라는 이렇게 중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동반돼야 하는 마흔여섯 개의 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본단 말이에요? 그냥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증인 김광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준비한 건 맞지만……

○이인영 위원 다시 확인합시다.

기업회생절차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주요 간부들이 결정해서 서류 준비를 시작한 건 3월 1일부터라는 거잖아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거는 일단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마흔여섯 개 준비해야 할 서류 중에서 직접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떼야 되는 것들이 구분되는데 1·2·3 이 휴일 날 직접 가서 뗐다고 이야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지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직접 뗀 게 있는지 저도 잘, 그런 게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들어가세요, 두 분.

금융위원장, 오늘 보고 중에서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 CP, 단기사채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인영 위원 위법 소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저희들 금융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죄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인영 위원 혹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관계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기업회생절차가 일종의 약탈적 M&A—아까 나온 발언입니다—그리고 먹튀용 위장 회생절차,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회사 위장 폐업과 같은 형태의 그런 위장 회생절차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위 관할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기업회생절차가 위장용으로 돼 있으면 그건 어디서 관할할 거냐 이거예

요.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하고 금융감독원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니까 채무조정, 부채청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중에 되풀려고 이렇게 위장용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거면, 그게 확인되면 어디서 관계하겠냐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검사·조사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다만 일단 흠플러스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사실은 A3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서 A3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기가……

○**이인영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어디서 그걸 관여할 거냐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금감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쟁여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하게 질타 겸 질의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오전 질의 중에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축사하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우크라이나 간 게 아니고 폴란드를 갔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폴란드를 간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정부나 국토부장관이 거기에 삼부토건을 데리고 갔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로는民間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원희룡 장관이 축사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금감원장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국토부나 정부에서 삼부토건을 데리고 간 건지 자기들이 그냥 일방으로 왔는지 그걸 확인해 주세요, 내가 오전 질의 듣다가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오후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걸 확인 좀 해 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홈플러스와 관련되어서 뒤에 강경모 중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노조의 최철한 사무국장님 계시지요? 아마 오전에 질의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차 질의하고 2차 질의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때 노조 또 관련되어진 입점협회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로 삼부토건 관련돼서 금감원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원장님, 검사로 재직하실 때 이런 주가조작 사건이나 특수 사건들을 많이 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해 본 적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해 본 적 있으시고.

PPT를 하나 좀 띠워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부토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2023년 5월 전에, 원장님 아시기로는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이런 해외 원조사업이나 해외 건설사업을 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중견기업에 대해서.....

○박상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을 말씀드리거나 이런 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짧게. 그렇지는 않았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박상혁 위원 2022년 6월에도 삼부토건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즉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여기하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건 아시지요? 그때도 주가가 한번 좀 들썩였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 흐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과 여러 가지 국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봤는데요.

금감원장님, 국정농단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수사팀을 이뤘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특검에 파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때도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해당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최은순 씨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최은순 일가의 국정농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게 된 것을 그 당시 특검 수사팀이 밝혀낸 거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장관이 가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을 국토부1차관이 2023년 5월 18일 날 면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저도 서울시에서 일해 봤고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주된 대통령·장관·부총리 이런 사람들의 일정이나 행사에 그런 그림들을 맞춰서 끼워 넣고 그것을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공모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금감원장님, 아까 원희룡 장관이 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금감원이 이 문제를 다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강제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에 이 문제를 넘기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중선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박상혁 위원 아니, 구체적인 발언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결정을 할 시기가 왔고 저희들은 특검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총체적인 정부 관계자들의 큰 그림하의 계획 속에서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굳이 물으시니까 과거 특검의 사례와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박상혁 위원 왜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리고 국토부장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 삼부토건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장관이 참석한 행사에 자기들이 따라붙은 건데 포럼 등에 대해서는……

○박상혁 위원 그게 바로 기획이라는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그러면 지금은 문제 제기를……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주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데 그분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의혹 사건으로 지금 자꾸 저희한테 하시는 거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상혁 위원** 원장님, 들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초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과 메시지를 통해서……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기획하는 별도의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위원님도 행사에 가서 축사하시고 저도 행사에 가서 축사하는데 행사 가서 축사했다고, 거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저희 관련된 의혹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윤한홍**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셔야 돼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아까 6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결론 내려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거면 수사를 의뢰하고 마무리할 거면 마무리하고 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들고 있으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들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김광일 부회장님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님은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MBK의 이런 약탈적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경영 방식의 일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비도덕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홈플러스의 어이없는 전단채 발행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금정호 증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올해 6월에 만기 도래하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의 채무가 2500억 있었고 그게 6월에 만기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 있으십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는 메리츠를 통해서 1조 3000억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건 알고

있었고요, 2500억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통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통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광일 조기상환 조건이고 저희는 통보한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신영증권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부회장님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증인 김광일 저희는 리파이낸싱됐을 때 조건을 다 드렸다고, 주요 조건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2월 25일 날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했고 27일 날 최종적으로 등급 하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던 2월 20일 날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가 발행이 됐지요.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상하지 못하셨지요. 아셨으면 사기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모르셨다고 하는데 이 PPT를 보면 신용평가사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회사 경영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미리 알려 준다고 하고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소통도 많이 하고 자료 보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만약에 알았던 사정이 발견되면 이거는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책 임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용도 부담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업보고서도 본 적 없으십니까?

○증인 김광일 신용평가는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봤습니다마는 신용도 부담 보고서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홈플러스는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됐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코로나 이후,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중단기 내 영업실적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무 지표도 개선되고 있었고요.

○김재섭 위원 자신 있게 대답…… 경영실적 여력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지만 그 후로 점차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 등급 하향 조정 사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회장님께서도 1번, 2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고요 3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한국기업평가 기준에 따르면 충분하게 등급 조정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24년 2월 평정 대비 25년 2월 평정에서는 저 세 가지 사유가 전부 다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몰랐다고 치더라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MBK가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한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신용등급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여섯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등급 하락 추세에 있었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맞지요? 하필이면 딱 이때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증인 김광일** 그런데 송구하지만 24년 2월 대비 25년 2월이 저 세 가지 측면에서는 전부 다 개선되었고 슈퍼 부문 매각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떨어질 걸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단채를 많이 발행하신 겁니까, 기업어음이랑?

○**증인 김광일** 저희가 매년 매월별로 발행하는 거는 크게 보면 1000억~1500억 사이로 매입채무유동화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도 비슷하고요.

○**김재섭 위원** 지금 비교를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발행이 됐고, 더 문제는 계속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행을 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광일** 저는 저 수치가 정확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200억~150억 가량 더 발행된 건 맞습니다,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매출이 늘면 매입채무유동화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매입에 따라서 유동화를 하는 것이라서요.

○**김재섭 위원** 추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잠깐만, 증인 좀 부르겠습니다.

김광일 증인.

그리고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참고인 서원주** 여기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2015년도 인수 당시의 구조입니다.

감독원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봤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최근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총인수대금이 얼마 들었던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대금 말씀입니까?

○**유동수 위원** 예, 테스코한테 지불한 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7.4조입니다. 전체적으로 7.4조고요 본인들이 출자한 돈은 2.4조입니다, MBK가. 그다음에 RCPS, 국민연금 등이 출자한 돈이 0.7조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주식 인수를 전제로 한 홈플러스 주식 담보 내지는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대출의 인수금융 3.1조, 그다음에 자체자금 1.2조를 통해서 테스코한테 전체적으로 갚 돈이 5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모사채 1.4조를 상환하고 직원 위로금으로 0.2조를 준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MBK의 핵심 인수전략이 LBO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투자금 빌려 가지고 인수하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d buy-out)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자산 자체를 담보로 한 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수익권증서 발행한 게 있습니다. 수익권증서 발행한 게 있고요, 3.1조 인수금융 할 때.

이미 인수하려고 하는 5조 원의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거는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뒤에 우리금융한테 차입할 때는 수익권증서도 끊어 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원장님, 아까 말한 대로 홈플러스가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권증서를 끊어 주고 이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면 홈플러스 이사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매입 구조를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라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김광일 증인 나와 계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MBK가 한국리테일투자이호와 한국리테일투자 주식회사를 각각 설립하지요. 이 구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증인 김광일** 3호와 3호의2는 저희 블라인드 펀드로 다른 투자에도 쓰이는 펀드입니다.

○**유동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1호·2호가 우선주지요, RCPS?

○**증인 김광일** 2015-1호·2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동수 위원** 예.

그다음에 4호 것이 1.2조지요, 약정금액?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2015-1·2·3·4 각각 구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2.4조의 원천은 뭐니까?

○**증인 김광일** 2.4조 중에서 5000억은 3호랑 3호의2에서 들어간 보통주고요, 나머지 1.9조는 1·2·3·4호 중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일회성으로 투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별도로 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니까?

○**증인 김광일** 저 중에서 아마 2호와 3호인가는 우선주 주주라서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요.

○**유동수 위원** 말고, 리테일투자이호 회사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증인 김광일** 공동투자자가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호한테 배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증인 김광일** 2호에는 우선주가 없습니다. 리테일 투자자는……

○**유동수 위원** 1호는 우선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전부가 우선주는 아니잖아요.

○**증인 김광일** 하지만 받아서 우선주 주주에게만 저희가 배당을 해 주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3% 주기로 했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면 감독원장님 2015-4 내지는 3의 주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LP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자꾸 테스코 자금이 여기에 들어왔을 확률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회로 돈을 넣어 놓고 자기 주식을 엑시트하는 구조를 짜기 위해서 MBK가 툴로 이용됐다, 도관으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벌써 끝났나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금 해 보세요, 1분 더. 들어 볼게요.

○**유동수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테스코가 여기에 출자를 해서 마중물로 돈을 넣었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 뭔지 제가 이해한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柳榮夏 위원** 질의 전에 김광일 증인, 저 앞쪽으로 가실래요.
- 증인,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게 언제지요?
- 증인 김광일** 예비적으로 보고받은 건 25일 6시 다 돼서입니다.
- 柳榮夏 위원**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 증인 김광일** 자금 담당 임원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이름이 뭐예요?
- 증인 김광일**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런데……
- 柳榮夏 위원** 왜 그래요? 왜 못 밝혀요? 그것도 기업 비밀인가요?
-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개인 이름이라서. 이성진 전무입니다.
- 柳榮夏 위원** 보고받고 어떤 조치 했지요? 그다음 날 홈플러스가 한국기업평가를 방문해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었지요. 맞습니까?
- 증인 김광일** 재심 신청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재심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지요?
-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그날 거절당한 건 아니고요.
- 柳榮夏 위원** 그다음 날 통보가 왔잖아요. 27일 날 최종 통보 받았지요? 공시는 28일 날 된 거고.
- 증인 김광일** 27일 6시에 통보받았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공시는 28일 된 거고, 그렇지요?
-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생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지난 3월 2일이다.
- 증인 김광일** 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 증인 김광일** 이사회는 3월 3일에 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3일 3일 했고, 최종 결정한 게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 증인 김광일**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임원들……
- 柳榮夏 위원** 날짜가 며칠이냐고 묻잖아요.
- 증인 김광일** 3월 1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3월 1일 날.  
    이사회는 3월 3일 날 했나요?
-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 이후에 법원에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당시 회생개시 신청했던 변호사가 김관기 변호사 맞나요?
-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회생 신청 담당 부서?
- 증인 김광일** 회생법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柳榮夏 위원** 아니, 기업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이거 서류 준비하고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증인 김광일** 자금하고 회계팀하고 다 함께 주말 동안 일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회생법원이 지난 3월 4일 날 11시에 회생개시 신청 받아들였지요.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 선정한 것 알고 있지요?

○**증인 김광일** 그날 알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법원에 4월 29일까지 최종 조사보고서 제출하는 것 알고 있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조사위원이 신청된 기업을 청산할 건지 기업가치를 존속시킬지를 서류 검토하기 위해서 기간이 한 50일 정도 걸리니까 법원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에서 회생 신청을 할 때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기본적으로 조사결과서를 왜 작성해야 되냐면 조사결과서가 있어야 이걸 토대로 해서 조사위원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사결과보고서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돌려요. 관계 회계법인과 로펌 같이 해서 이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 줄 건지, 채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시뮬레이션 다 돌리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회생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 오십몇 가지가 돼요.

아까 이사회 결정이 3월 3일이라고 그랬지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시킨 건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준비시켰습니까, 3월 1일 이후에 준비시켰어요?

○**증인 김광일** 3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까 오전 질의 중에…… 3월 1일부터 2일, 3일 날 다 공휴일인 것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 서류 중 한 개가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재까지 기업 보험의 해약확인서가 있어요. 해약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냐 확인서가 있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준비해서 했다 이랬지요. 그리고 오전에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등급이 A3-가 되면 자금조달이 안 돼서 앞으로 향후 3개월 한 6000억~9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 김광일** 6000~7000억입니다.

○**柳榮夏 위원** 7000억 정도 부득이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며칠 전 보도에 보면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 출연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지요.

그러면 동료 위원인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병주 회장이 자산 12조 8000억의 자산가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을 좀 하기 위해서 돈을 사재 출연하라고 그러면 이 사태를 안 만들잖아요.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기업이 자구책이 있어야 돼요.

증인, 지난 6월 달 임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증인 김광일 저는 홈플러스에서 받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범조인이니까 아시겠지만 임금은 공익채권이라서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지불되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만약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경영 실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진들은 자기 임금을 동결시키든지 반환하는 그런 구제책이 있고 난 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하는 바람에 판매대금 못 받은 사람들 있고 임대료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들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아 가면서.

그리고 3월 14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홈플러스 점포 매각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금융 부채 갚는 데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증인 김광일 점포 매각대금이 운영자금에도 쓰이고 투자자금에도 쓰이고 채무상환에도 쓰였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됐어요?

○증인 김광일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어려워서 차입금이 늘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기 지금 국민일보 보도 보면 ‘점포 매각대금은 홈플러스 운영자금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거 말고 다른 설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 질문 중에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인수할 때 저희가 홈플러스……

○**柳榮夏 위원**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테스코 1억 2000 할 때 홈플러스 부동산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대환한 거 맞잖아요?

○**증인 김광일** 그 당시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지 않았습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처음에 홈플러스홀딩스하고 스토어즈 주식을 가지고 대출받은 거 맞아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테스코 1조 2000억 반환할 때 홈플러스 부동산 가지고 담보대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광일** 1조 2000억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홈플러스에.....

○**柳榮夏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증인 김광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柳榮夏 위원** 증인, 아까 홈플러스 자산 가지고 대출받은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김광일** 인수자금으로는 저희가 대출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홈플러스의 기존에 있던 차입금을 갚기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그건.

○**柳榮夏 위원** 대출받은 거 맞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홈플러스 차환용 대출에는 홈플러스 자산이 담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柳榮夏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이강일입니다.

김광일 부회장님 그냥 계십시오.

본 위원은 홈플러스 사건을 바라보면서 관점을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과연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홈플러스의 운영 과정 중에서 한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든가 새로운 혁신성이 부여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200%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800%로 줄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광일**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했습니다. 8000억~9000억 정도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게 자본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일 편이하게 하는 방식이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이 증가한 건 아니네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한 가지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홈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회계기준이 2020년도에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합치면서 부채 규모가 7.9조 원, 이게 당시에 홈플러스 전체가 안고 있었던 부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 1월 기준으로 추정을 하면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우선주를 부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선주를 부채로 평가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매각한 매각대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부동산 매각은 1조 8000억 정도 했습니다. 1조 7000억, 8000억.....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매각·폐점 현황에서 매각됐다라고 발표된 금액들을 쭉 더하면 밝혀지지 않은 것 빼고도 4조 원이에요. 왜냐하면 안 밝혀진 것까지 하면 5조가 넘어서 한 6조 가까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기 금액이 틀렸나요?

○증인 김광일 그 부분은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라고 자산 매각 후 재임차라는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으로 점포를 매각하고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일단 매각대금은 제가 예상한 건 어바웃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채는 1조 9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매각대금은 6조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디 간 건가요?

○증인 김광일 아까 말씀드린.....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PPT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에서 이자비용 부분을 좀 볼까요? 이자비용을 보시면 2016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부터 매년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2018년도부터 4000억대를 거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맞지요?

○증인 김광일 거기에 임차료가 이자로 분류돼서 그렇습니다, 회계기준이 바뀌어서요. 아까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부채 부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자, 보세요.

건전한 자산을 팔아서, 맨 처음에 홈플러스가 갖고 있었던 부채 규모를 보고 만약에 매각대금이 그대로 경영 합리화 쪽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면 부채를 대단히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임대비라든가 이자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전에 없었던 비용들이, 이자비용이라고 나타난 부분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사의 이익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PPT에서 3사의..... 홈플러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봐 주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대형마트 3사가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저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마트도 매출액이 약간 줄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변동 차이는 크지 않고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익구조를 보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3사 중에 홈플러스만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이 그래프 보시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만 있고요.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나 스타벅스가 포함돼 있고요, 롯데도 다른 사업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1분만 더 주세요.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광일 마트 3사가 비슷한 처지인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마트 3사가 다른데 지금 흑자와 적자가 번갈아 가면서, 다른 데는 다 흑자 쪽인데 여기는 계속 적자 기조잖아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부가 다 포함돼서 저게 연결로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하면 되겠지만.

홈플러스 경영을 하면서 MBK가 경영 쪽으로, 경영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 수치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 이외에 뭐 한 게 있나요? 이 점포들 매각한 것은 우수한 점포를 매각한 겁니까, 잘 안 되는 점포를 매각한 겁니까?

○증인 김광일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왜 우수한 점포를 매각하지요?

○증인 김광일 코로나 이후로 적자가 계속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점포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김광일 부회장님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매번 국회에 나오셔서 증인 서려면 많이 힘드시니까 다음에는 김병주 회장 모시고 나오세요.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간 MBK 파트너스의 기업 인수 현황 좀 볼게요. 2008년 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고려아연, CJ제일제당까지 해 가지고 보면 ING생명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 이익을 남겼네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광일 예, 금액은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익 남겼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렇게 쭉 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면 단기적 수익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또 저번에 국정감사 할 때 아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국부 유출. MBK 펀드 구성의 한 70~80%가 해외 자본이다. 그중 한 5%는 중국 자본이다. 맞습니까? 지난 국감 때 말씀하신 겁니다.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지요, 국부 유출도.

경영 능력을 보면 그동안에 구조조정도 많이 하셨고 또 약속도 안 지켰고요. 또 가맹점주한테 책임을 떠안기고 건실했던 기업을 인수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키워드 단기 고수익을 남기고, 국부 유출 우려가 있고, 경영 능력에도 심히 의심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저번 국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고려아연 반년째 경영권 다툼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광일 예, 진행 중입니다.

○강준현 위원 당시에도 중국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증인께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언 지금도 유효합니까?

○증인 김광일 예, 유효합니다.

○강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아요,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혹시 김광일 증인께서는 전공이 뭡니까?

○증인 김광일 경영학과입니다.

○강준현 위원 지난해 말에 김병주 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한다’라고 말했는데 MBK 회장이 지배구조를 얘기하고 주주가치를 얘기하는 게 자기모순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모든 행태를 보면, ING생명 팔아서 2조 남기고 홈플러스까지 사태를 쭉 보면.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하는 건데, 혹시 김광일 증인께서는 그 전문성이나 경영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증인 김광일 제가 비철금속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강준현 위원 만약에 이것을 인수하면 누가 경영하실 거예요?

○증인 김광일 전문경영인들이 해야 되고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들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준현 위원 홈플러스도 전문경영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강준현 위원 있는데 이 지경이에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강준현 위원 지금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증인 김광일 예.

○강준현 위원 두 번째는 MBK 사모펀드가 전반적으로 여러 기업을, 여러 업종을 무분별하게 인수를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보여요.

김병주 회장께서 사재 출연 말씀하셨고 사회적 책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재 출연 같은 경우는 시기나 규모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쯤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증인 김광일**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랑 같이 방법하고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강준현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김병주 회장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여야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청문회 한다니까요,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혼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 김광일** 홈플러스 투자는 제가 주도를 했고……

○**강준현 위원** 차라리 고려아연 지분 팔아 가지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하세요. 그게 나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국가기간산업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김병주 회장 오면 고려아연 아니면 CJ바이오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물을 거예요.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이게 다?

○**증인 김광일**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조금 계셔 보세요.

제가 잠깐 금융위원장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펀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는 위원님들 질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모럴 해저드 문제…… 경영의 어떤 자질이나 역량은 없으면서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그 기업에 있는 현금 또 자산 매각 이런 방식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사실상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홈플러스도 그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민간기업을 불러서 우리가 현안질의하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보면서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모펀드가 지금 전 기업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기업이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대 놓고 그냥 투자금만 빼 가고 회사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사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면서 단기채권을, 금융채권을 투자자들한테 팔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알고 그랬다는 정황이 지금 놓후합니다, 우리 경험들 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습책입니다. 제가 아까도 ‘상거래채권은 처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홈플러스 직원이 2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사람들 일자리 문제 또 입점업체 문제, 납품업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 없이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 거냐.

지금 홈플러스·MBK가 6월 3일까지 기업회생 대책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 기업회생 대책에 어떤 대책이 들어갈 거며 어떤 수습책이

나올 거냐. 지금 이 단기금융채권은 한 6000억 가까이 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아까 자료 보니까 6000억 가까이 되는데 개인에게 판 게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법인이 나머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사기 아니냐. 또 신영증권은 신영증권대로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몰랐다’ 일변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 들어 보면 ‘몰랐다’. 그러면 신영증권이나 MBK·홈플러스에서는 이제 서로 평퐁 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문제, 그 부분이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 확실히 좀 책임지셔야 될 거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은 이런 단기채권 문제 그다음에 신용평가 문제, 과연 이 신용평가가 이렇게 강등이 되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까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현금 박치기 아닙니까? 기업 사 가지고 알짜재산 다 매각하고 그다음에 현금 다 가져가면서 투자금 회수하고 그다음에는 모르겠다, 이 사모펀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둘 건지 어떤 제도개선책이 없는지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 지적이 있을 거고 피해자는 계속 나올 거다.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MBK 김 부회장님께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든지, 지금 기업회생절차 신청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납득하지 못할 요소가 일정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항변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걸 그냥 자기들 주장만으로 밀고 갈 생각을 하면 다음에 추가적인 청문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습책을,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때 계속 또 같은 질의가 나오고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 수습책을 오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돌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뺌하시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 내서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까지 오늘 답변이 나와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민간영역이다 해서 이걸 그냥 오늘 어물쩍 넘어가겠다 그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

○증인 김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우리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대책도 만드시고 제도개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구 1분만……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김상훈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하세요.

○**강민국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흠플러스를 MBK에서 인수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또 인수 이후에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왔어요. 제가 5분 내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자회사를 먼저 인수하고 자회사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고 자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모회사인 흠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흠플러스 베이커리에 대한 지분 인수 100%, 흠플러스 금융서비스 100% 지분 인수, 흠플러스 테스코 지분 인수 등등등 해 가지고 흠플러스를 인수했는데 흠플러스 인수 이후에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의지도 전혀 없었고. 뭐부터 했느냐? 흠플러스가 갖고 있는 각종 상당한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는 데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되고 굉장히 잘나가는 흠플러스 매장을 계속 매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든 돈 가지고 인수 당시에 소요됐던 여러 가지 차입 비용을 갚아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빌려서, 다른 데 돈을 융통해서 흠플러스를 인수하고 그걸 갚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다른 데 투자할 여력도 없이 계속 그냥 부동산 매각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에 대해서 적대적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증인 김광일** 경영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6개월이 소요됐는데, 대한민국 광물질 개발업체 중에 고려아연은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인데 MBK가 인수하면 흠플러스 짹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MBK의 인수 이전·이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사모펀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흠플러스에 투자는 계속했습니다. 흠플러스에서 우선주가 받아 가는 현금 배당 빼 놓고는 저희가 배당 받아 간 것도……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MBK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온라인 위주로 소비문화가 바뀐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가 흠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매장 매각,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흠플러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최악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흠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업무량을 늘리고 또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보직에

배치하면서 굉장히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MBK라는 이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의 유망한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2만여 명의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증인 김광일** 회생으로 인해서 심려 끼쳐 드린 것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회생절차 해서 빨리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으면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이 신용등급 하락하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로 바로 돌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모펀드, 김병주 회장의 너무 편의적인 사고에서 발단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홈플러스의 상황이 다른 기업들에게 재연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김병주 회장이 약속했던 사재 출연 등등을 통해서 거래 협력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차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씩 하도록 하고 부족한 시간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서 끝내십시오, 오늘 순서 때. 아시겠지요? 7분 드리고 추가로 1~2분 더 드릴 테니까 오늘 질의를 끝내시라고, 각자. 나중에 재보충질의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창민 위원** 재보충 5분 이야기 들어 가지고……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7분 드리고 부족하면 마무리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5·7·5가 아니라 5·7만 하자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윤한홍** 예, 7분인데 부족한 시간을 내가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라고요.

○**김용만 위원** 재보충질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돼서.

○**위원장 윤한홍**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5분짜리 질의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따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나중에 하시든지, 오면. 나중에 같이 하세요.

○**한창민 위원** 아니, 정해 놓고 이렇게 갑자기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한홍**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7분 질의하세요.

○**한창민 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시간을 좀 지키세요. 나중에 5분을 더 쓰시려면 시간을 지켜 달라고요.

○**한창민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5분을 따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5분 더 하실 분들은 시간 지키시고 안 그리고 마무리하실 분들은 조금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창민 위원** 보충으로 하게 되면 5분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 윤한홍** 시간 꼭 지키세요.

○**한창민 위원** 먼저 서원주 본부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고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다시 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님, 오전 질의에서 했던 것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중요 사건이라고 언론에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 보시면 3월 5일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중요 사건이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하고 언론에도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다른 표현……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사건이지 우리가 긴급,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이나 아니면 공동조사할 그런 사항으로 표현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금융위라든가 검찰과……

○**한창민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요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였나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위, 검찰과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서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야지 왜 그런 이야기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던 것은 긴급·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단독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나 아니면 공동조사로 전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염중하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전 질의에서는 ‘이 사건 처리에 금감원의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명

운이 걸린 사건인데 단순 일반 처리하듯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좋은 방법, 더 중요하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확대되어 있는 금융위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왜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빠르게 검찰 수사로 넘겨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가지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단독사건으로 계속 시간 걸려 가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꾸 축소·은폐 의혹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앞뒤 안 맞지 않고……

○**한창민 위원** 본인은 맞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과거에 SM 사건도 그렇고 SG 사건도 그렇고 대형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기초를 단단히 다져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사상누각처럼 다 무너집니다, 위원님.

○**한창민 위원** 기본적인 그것 한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걱정 없으시도록 최대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민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계좌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명·차명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이게 국가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변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어쨌든 저도 절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은 공동조사나 패스트트랙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창민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것……

○**한창민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동조사나 패스트트랙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그 공동……

○**한창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당국 내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한창민 위원** 됐습니다. 명확하게 할 거냐 말 거냐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돌립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창민 위원**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의 한국리테일 주식회사를 통해서 홈플러스에 투자한 것 맞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맞습니다.

○한창민 위원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포기하면 주주가 된다는 말인데 이것 국민연금에서 포기한 것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참고인 서원주 사실이 아닙니다.

○한창민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요?

○참고인 서원주 예, 사실이 아니고……

○한창민 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투자했어요. 국민연금은 한국리테일에 RCPS 방식으로 했고 한국리테일이 홈플러스한테 RCPS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이중투자가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리테일은 홈플러스하고 이 상환권 포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서원주 알지 못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포기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한국리테일이 홈플러스를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은 상환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주로 환원되잖아요.

○참고인 서원주 구조상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한국리테일을 통해 가지고 홈플러스에 투자한 건데? 여기에서 상환권이 부인이 되고 전환권만 남게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상환 못 받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상환권을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6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9%의 수익률을 가지고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약 1조 원가량이 남는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 1조 중에서 3000억 정도가 지금 회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7000억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참고인 서원주 홈플러스가 법정 이후에 경영이 잘되고 회생이 되면……

○한창민 위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회생절차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남아 가지고 이걸 환수받는다고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것 언론 앞에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당신들 책임져야 됩니다. 공적자금을 이런 데, 3호 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7000억 정도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학약서 써 준 적 있습니까, 예전에 MBK에 투자학약서?

○참고인 서원주 어느 시점을……

○한창민 위원 2015년에 투자하면서요. 본입찰 전에 투자학약을 한 경우가 처음으로 있었고 국민연금 투자 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많이 났던 데 그것 사실이지요?

○참고인 서원주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나왔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결국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오히려 MBK 파트너스의 파트너가 국민연금이 돼 가지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준 꼴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이 MBK 3호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산 겁니다. 투기행위에 국민연금이 도움을 주고 지금 공적자금도 회수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이런 피해를 이중으로 만든 게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참고인 서원주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위원장 윤한홍 방금 7000억 손해 본다는 얘기하고 확약서 인수할 때 써 줬다는 것하고 답변을 하고 가셔야지요.

○참고인 서원주 확약서 이야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사안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운용 부서하고 유관 부서 그리고 법무팀 할 것 없이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연금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어떻게 회수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윤한홍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7000억 손실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실래요? 답변을 확실히 안하고 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고 가야지요.

확약서 부분도 지금 빨리 확인해서 이 회의 중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인 서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확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7000억 손실 본다는 부분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실 생각 하지 말고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확인해 보고.

○참고인 서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민병덕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민병덕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강경모 입점협회 부회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공동대표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조주연 대표님하고, 이렇게 두 분 여쭤보겠습니다.

강경모 부회장님, 입점업주 사장님이시지요?

○증인 강경모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지금 1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2월 말에 받게 되어 있는데 2월은 30일이 아니니까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받게 되어 있고 3월 4일 날 10시나 11시경에 받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증인 강경모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3월 4일 날 10시에 재판이 시작돼서 11시에 기업회생 결정이 나면서 못 받게 된 거지요?

○증인 강경모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교롭게 그 시간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강경모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1월분 판매대금 받았습니까?

○증인 강경모 1월분 13일경에 받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받았지요? 우리가 3월 9일 일요일 날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간담회를 하고 3월 13일 목요일 날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사이에 1월분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았고 2월분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3월 말까지 받기로 좀 배려를 받은 거지요?

○증인 강경모 그 부분은 앞서 공문의 형태로 그렇게 받았었고요. 2월분에 대해서는 어제 자로 3월 28일 날 입금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돈은 아직 못 받았고요?

○증인 강경모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지금 불안한 점은 뭡니까? 지금 상거래채권 돈 잘 들어오고 있는데 불안한 점은 뭡니까?

○증인 강경모 또다시 1월 달 같은.....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3월 달 것 지금 입금하고 있는 거지요? 홈플러스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 돈은 3월 말에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 강경모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1월 달 것은 받았고 2월 달 것은 3월 28일 날 받기로 돼 있고 —이것 조금 의심스럽고—3월 달 벼는 것들을 지금 홈플러스에 내고 있는데 이것을 4월 말에 과연 받게 될지 이게 불안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인 강경모 현재로서는 점주님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POS를 설치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민병덕 위원 개인 POS를 설치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수수료를 일정한 시기에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증인 강경모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증인 강경모 예.

○민병덕 위원 시간 좀 그쳐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조주연 대표님하고 김광일 대표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두 분에게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입점업체 사장님의 불안하다고 하는 부분, 그 전에 1월분에 대해서 처리를 저희랑 협의하에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여기겠습니다. 2월분에 대해서는 실은 절반은 미리 주고 나머지는 3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약간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분, 지금 돈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4월 달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조주연 대표님, 이해하십니까?

**○증인 조주연**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민병덕 위원** 아니, 그 마음 이해하시냐고요.

**○증인 조주연**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불안해하실 것 같지요?

김광일 대표님, 그러면 저 점주 말씀처럼 3월분부터 들어가는 돈들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내지 않은 부분들,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만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분만 정확히 홈플러스에 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사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민병덕 위원**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입점업체가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지금 날마다 매장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회생 신청일 직전인 2월 말에 집중적으로 들어난 것들이 있어요. 단기자금이 있는데 그게 25년 1월과 2월 달 사이에 3630억 원이 조달됐는데 이게 23년이라든지 24년에 비해서 훨씬 들어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유동화자금 이것도 2월 25일 날 된 게 역대 최고입니다.

어떤 의심이 드냐면 기업회생 하려고 금액을 엄청 쌓아 둔 것 아니냐, 그래 놓고 기업회생 해 버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2월 달이 역대 최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1월, 2월이 성수기여서 매입 규모가 좀 많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예.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간 그쳐 주시고요.

김기범 대표님, 한국 기업 평가하는 곳이지요?

**○참고인 김기범** 예.

**○민병덕 위원** 홈플러스, A30에서 A3-로 바뀌었는데요. 25일 날 1차 예비통보를 했고 재심 신청을 했고 다시 28일 날 등급 하락을 공시했는데 재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재심에서는 좀 희박합니다.

○민병덕 위원 희박하지요. 그러면 거의 25일 날 이미 알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참고인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등급 하락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적어도 1~2주일 걸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등급 심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민병덕 위원 2월 달하고 8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한 2주 걸렸습니까, 3주 걸렸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민병덕 위원 한 2주 걸렸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예.

○민병덕 위원 조사하다 보면 등급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그냥 꽉 때려 버리는 게 아니라 재무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를 들면 여기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언제 매각 할 건지 이런 보완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예, 요청합니다.

○민병덕 위원 요청했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예, 요청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이번에 평가가 하락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기범 저희 입장에서요?

○민병덕 위원 예.

○참고인 김기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예측했지요. 예측했는데, 김광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예측했으면서도 이러한 돈들을,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금융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저분은 분명 예측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검사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김광일 대표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신영증권 사장님 잠깐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 몇 분만 물을게요.

대표님,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아까 3월 1일부터 했다고 했나요?

○증인 김광일 28일, 1일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했고요.

○민병덕 위원 거기 회생 서류 하는 거 보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했더라고요.

○증인 김광일 1월 말 자 가결산.....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1월 말 자지요?

- 증인 김광일 예, 저희가 월말 결산합니다.
- 민병덕 위원 여기 2월 말 법인 결산 아니에요? 결산법인 아니에요?
- 증인 김광일 2월 말은 저희가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원래……
- 민병덕 위원 2월 말 결산법인 아니에요?
- 증인 김광일 2월 말 결산법인 맞습니다.
-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1월 달 것을 만들어 놨냐고요. 2월 말 결산법인이면 2월 말까지를 3월이나 4월 달 해서 마무리 짓잖아요.
- 증인 김광일 저희 회사는 월별 결산합니다. 매월 합니다, 이것을.
- 민병덕 위원 그걸 뚝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 증인 김광일 매월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던 겁니다.
- 민병덕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한 3분 안 하시고?
- 민병덕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 위원장대리 강민국 1분 더 드리십시오.
- 민병덕 위원 금감원장님, 홈플러스 회생 신청 때 실무는 김앤장 로펌에서 했고 신청은 김앤박 로펌에서 했습니다. 여기 조사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자료제출을 했고 계약을 했고 이랬는지. 이게 지금 여기 사기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시지요?

- 증인 금정호 예.

- 민병덕 위원 사장님이 홈플러스로부터 계속해서 단기유동화재권 발행하셨는데 사장님이 잘못했으면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사장님이 지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도 속았다면 사장님도 같은 피해자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 증인 금정호 알고 있습니다.

- 민병덕 위원 사장님 입장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 증인 금정호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민병덕 위원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근거들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금정호 저희 증권회사가 신용평가사와 직접 등급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없고요. 발행업체와 신용평가사는 그사이에 계속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민병덕 위원 신영증권이 그러면 피해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신영증권도 속은 겁니까, 아닙니까? 신영증권의 증권 발행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자기 노후 자금, 결혼자금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증인 금정호**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좀 화가 납니다.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 했고 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나중에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3월 4일 날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마지막 발행이 며칠이지요?

○**증인 금정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덕 위원** 마지막 증권 발행한 거 있잖아요.

○**증인 금정호** 2월 25일입니다.

○**민병덕 위원** 그것이 저는 속아서 발행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발행했느냐 묻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증인 금정호** 당연히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속았습니까?

○**증인 금정호** 그렇지요.

○**민병덕 위원** 그 속았다는 근거를 좀 말씀하시라고 자리를 깔아 주는데 말씀을 못 하셔서.

○**증인 금정호** 2월 25일 날 아침에 유동화 등급이 A30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820억 원을 그날 기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날 2월 25일 날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등급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홈플러스 측에 발행 취소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2월 27일 날 오후 6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민병덕 위원** 그렇습니다. 25일 날 예비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재심해 봤자 그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날 발행하면서 그 말을 안 하고 27일이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금정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민국**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먼저 김광일 대표님 저쪽으로 좀 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민국** 그리고 위원님들, 호칭을 증인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김광일 증인께서 저쪽으로 좀……

(영상자료를 보며)

김광일 증인,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이례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홈플러스의 행보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먼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유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

로 떨어지면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됐고 이로 인한 지급불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통상 기업들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워크아웃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회생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A3- 평가를 받은 다른 기업들의 신뢰 역시 지금 바닥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김광일 증인, 홈플러스라는 회사 살리자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증인 김광일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정문 위원 김광일 증인, 지난달 기준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3200%를 넘었습니다. 2020년 약 860%에서 계속 늘어났는데요.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데에는 무엇보다 연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한 후에 재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가 이런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전체 임대료 중에서 세일 앤드 리스백 부분은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정문 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증인 김광일 1000억입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을 통해서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이정문 위원 그게 1000억입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증인께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일 앤드 리스백은 많은 기업들이 쓰는 방식이고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홈플러스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광일 오늘 현재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것은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는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금융비용도 절감됐거든요. 1000억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1000억 렌트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5년짜리 단기차입금이 15~20년짜리 장기차입금으로 성질이 변한 겁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그 매각한 대금, 아까도 설명하신 부분인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증인 김광일 세일 앤드 리스백 15개 점포는 전부 다 부채 상환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구조가 바뀐 겁니다, 3~5년짜리에서 15~20년짜리로.

○이정문 위원 그런데 부채 비율이 3200%를 넘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것은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적자를 실현했고요.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홈플러스 재무 상태는 하루아침에 악화된 게 아니고 꾸준히 악화됐습니다. 신용등급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번 신용등급 하락 역시 또한 예정된 수순이었고 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시그널도 계속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 인지했지요?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처음부터 갖다 냈고 신용평가사에서 등급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내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보통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사와 그 평가를 받는 회사 간에 여러 가지 자료가 오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평가가 하락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좀 전에 다른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걸 진짜 몰랐다고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예, 작년보다 부채 비율도 3000%에서 1460%까지 내려갔고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슈퍼마켓 부문이 매각이 되면 수천억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걸 다 신용평가사에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작년도 유지가 됐는데 올해만 떨어진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작년 8월인가도 떨어졌지요?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그때도 유지됐습니다.

○**이정문 위원** 유지됐어요?

○**증인 김광일** 2년째 A3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이정문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가 상거래채무와 함께 금융채무도 책임지겠다고 입장은 밝히셨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단채 투자 변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증권사가, 즉 여기서 말한 증권사는 신영증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이 유동화한 것이라 홈플러스는 관여한 바가 없어 잘 모른다 그리고 신영증권이 리테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해 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말씀 하신 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광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오나 송구하지만 저희가 유동화된 채권자들까지 포함해서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를 목표로 회생계획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문 위원** 증인,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은 이번에 단발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정기적으로 전단채를 발행해 온 일종의 파트너 관계라고 보는데, 결국 발행부터 규모까지 논의를 하며 계속 소통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몰랐다, 리테일을 통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광일** 저는 몰랐고 우리 자금 담당 임원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증인 김광일** 왜냐하면 신영증권이 판매대행사가 아니라 인수해 갔습니다, 저희의 매입채무유동화를. 그냥 인수해 간 다음에 본인들이 그다음 절차를 밟은 거라서 저희가 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저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여기 첨부 서류를 보면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중에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직접 법원이든 어디에 가서 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그것을 언제 발급받았는지 분명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출된 것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날짜라든지.

○증인 김광일 추후 제출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딱 거기서 두 가지 서류가 인터넷 발급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인데요, 법인등기부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월 28일 자를 저희가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사 내부 서류들입니다.

○이정문 위원 나머지는 내부 서류들입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회생절차의 신청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정문 위원 그리고 제가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를 아까 봤는데 이것을 단기간의 시간 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 김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증인, 신용등급 하락이나 전단채의 리테일 판매 등 지금까지 몰랐다고 발뺌한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책임 지시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제가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의 책임을 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금융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건지 법원 회생절차에 맡기겠다는 대답 말고 대주주인 MBK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광일 저희가 회생절차 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유자산이 4조 7000억입니다. 2조 2000억, 방금 매입채무유동화까지 포함하면 2조 2000억인데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 원금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생계획을 짜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정말 송구한데 저희 이번에 변제를 못 해서 송구하지만 꼭 그 안에서 변제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정문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LBO 방식이 기업에 과도한 부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규제 방법이라든지 향후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LBO 부분은 일반적으로 M&A를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실제 법원에 가서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사전적으로 어떻게 딱 규제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김광일·조주연 중인, 두 분 같이 앞에 좀 나와 주실래요?

김광일 중인, 지금 홈플러스 주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김광일** 한국리테일 주식회사와 한국리테일이호 주식회사와 해외 공동투자자 한명, 직접 주주는 세 명입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이 회생신청서 보면 주주 현황에 1대 2대 3대가 있는데 지분율 보통주식 33.35%, 제1종 종류주식 19.3% 이것은 어디 겁니까?

○**증인 김광일** 1종 종류주식이 아까 얘기한 상환전환우선주고 주로 국내 연기금들이 투자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내외 연기금들이 투자한 공동투자 자산입니다.

○**李憲昇 위원** 이 42.09%는 어디입니까?

○**증인 김광일** 그것도 다 국내외 연기금들이 투자한 공동투자입니다. 일회성 투자입니다. 블라인드……

○**李憲昇 위원** 연기금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주주들입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김광일 증인은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홈플러스에 관계하고 계시네요?

○**증인 김광일** 예, 제가 투자를……

○**李憲昇 위원** 인수 시작부터 계속 계셨던 거지요?

○**증인 김광일** 이 투자 담당 임원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겸하지만 또 2005년부터 지금까지 MBK 파트너스 투자 담당 임원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김광일** 기본 연봉은 많지 않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없고요, MBK에서는 2억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틀립니다.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주연 중인은 언제부터 홈플러스에 있었지요? 2021년부터 맞습니까?

○**증인 조주연** 예, 2021년 7월부터 마케팅부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주로 마케팅 담당하고 계십니까?

○**증인 조주연** 작년부터는 대표이사 맡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대표이사 하면 경영 전반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시지요?

○**증인 조주연** 예, 장사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장사하는 일, 예.

김광일 중인,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털어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혹시 중간에 통화된 게 있습니까? 규모나 시기, 방법에 대해서 혹시 발표하실 게 있어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요 조금만 말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憲昇 위원** 현재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약속했고 홈플러스에서 한 6000억 정도 가용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액 정산이 가능합니까?

○**증인 김광일** 상거래채무는 저희가 알기로는 다 전액 정산 가능합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홈플러스 정산주기에 대해서 다른 마트에 비해서 너무 길다 이랬는데 이 정산기일도 조정,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 조주연** 이것은 지금 업체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30일에서 45일 정도인데 계속 업체들과 논의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김광일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월 28일 날 신용등급이 하락됐는데 사실상 25일 날 평가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지요?

○**증인 김광일** 예, 예비통보를 25일 저녁 때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요.

○**李憲昇 위원** 조주연 증인,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게 홈플러스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MBK 지시에 의한 겁니까?

○**증인 조주연** 저희 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사회 하기 전에 사전 논의를 좀 거쳤습니까?

○**증인 조주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위임을 어디랑 했지요? 김앤박 법률사무소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김앤박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언제 이걸 의뢰할 생각을 가셨습니까?

○**증인 김광일** 첫 미팅은 28일 날 했고요. 오늘도 제출하면서 보니까 계약서는 3월 3일로 쓰여 있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3월 3일 12시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회는 같은 날 저녁 9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 하기 전에 미리 다 결정을 하고, 그냥 형식적인 홈플러스 이사회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비상장사라서 상장사랑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서요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준비는 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李憲昇 위원** 아니, 미리 이 두꺼운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 이것을 작성하려면 제 생각에는 하루이틀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이쪽의 전문 변호사예요. 다른 곳에 썼던 신청서 샘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홈플러스로 바꿔서 작성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고 저희가 월별 결산하기 때문에 1월 자료가 있어서 회계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자체 판단으로 지금 기업회생을 신청한 거지요? MBK 측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조주연 증인?

○**증인 조주연** MBK 측이랑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왜 협의를 안 하지요?

○**증인 김광일** 저랑 김광일 부회장이 공동대표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李憲昇 위원** MBK가 가장 최대주주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주주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바로 득단적으로 대표이사가 결정을 합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제가 MBK 쪽에서도 담당 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의사결정을하게 되면……

○**李憲昇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셨네요?

○**증인 김광일** 예, 그 4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사회 구성에 MBK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李憲昇 위원** 현재 홈플러스가 발행한 CP하고 단기사채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김광일** 62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정확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 자료로는 누적이 한 188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증인 김광일** 매입채무유동화 뺀 금액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금융업계에서는,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기존 CP를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CP를 발행했는데 이건 일종의 기망행위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매달 계속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 있고 매입채무유동화가 있습니다, 결제일 즈음해서. 그것에 따라 진행이 된 거라서 저희 자금팀에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김광일 증인께서는 정말로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李憲昇 위원** 최고 대표이사면서 두 분이서 그것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분이 정말 홈플러스를 이끌고 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대표이사로서?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때 바로 정정하고 취소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바로 못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증인 김광일** 저희가 신용평가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공시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와도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5일 오후 늦게 6시경에는 얘기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면도 있었고요. 송구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동안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재무부담 가중, 영업적자 지속, 수익성 회복 제약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하고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사기고, 몰랐다면 방만 경영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절차를 통해서 투자자들 원금 전액 다 변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작성하고……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강경모 증인과 최철한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철한 참고인은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일을 맡고 계시고요?

○**참고인 최철한**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강경모 증인은 입점 점주 대표자를 맡고 계시나요?

○**증인 강경모**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홈플러스 노동자 감원에 대해서 소속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6465명이 감원됐고 간접고용 4900명, 정말 1만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감원됐는데 2016년부터 MBK가 알짜 홈플러스 지점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참고인 최철한** 직원을 나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정년이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이 돼서 퇴사를 하시면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2016년에 홈플러스 북수원지점을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가 지역구인데, 그 바로 인접한 곳에 당시로서는 전국에서 거의 최대인 5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상권이 좋은 지역인데 이것을 왜 팔았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최철한** 16년도부터 들어오자마자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많은 점포를 매각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2015년 인수할 때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매물을 내놨다고 판단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8개 점포를 매각할 예정인 것이지요?

○**참고인 최철한** 점포를 이미 매각했고 9개 정도 폐점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폐점입니까, 폐점?

○**참고인 최철한** 예.

○**김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참고인 최철한**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회사가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약 2년 동안 여성노동자들 100여 명 정도가 삭발을 하면서 이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을 막고 재입점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약속을 받아 냈고 직영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변 점포로, 원하는 점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폐점했던 점포들은 주변에 매장들이 있는 점포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소 단위, 구 단위 군 단위 시 단위 점포들이 폐점된다면 어디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김승원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천상동점 이곳이 전국 매출 1위 점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도 폐점을 시킨다고 합니다. 폐점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회사에서 그러던가요?

○**참고인 최철한** 회사는 저희하고 그때 약속으로는 재입점은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2020년 이후 폐점한 점포 중에서 재입점한 점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재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근로자분들은 다 실직 상태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최철한** 예.

○**김승원 위원** 이번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거기 노동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랄까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최철한** 오늘 참가해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오전에 답변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 대표이사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듣고 직원들이 매우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2조의 빚이 있고 4조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무언가 직원들에 대한 대책, 4조가 있어서 2조 갚고 나면 2조가 남는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홈플러스가 회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포 매각이 아니고, 슈퍼마켓 매각이 아니라 정말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선제적 회생 신청이라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어떤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생 신청한 다음에 빨리 회복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앞으로의 홈플러스에 대한 전망이 좀 암울해 보이고요. 과연 이 회생계획안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나오지도 않았지만 결국에는 M&A를 통해서 또 딴 데로 넘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듭니다.

그다음에 입점 점포주를 대표해서 지금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지 또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강경모** 지금 피해 상황으로는 아직, 12일에 식음료 코너에 대해서 우선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13일에 리빙 코너에서 일부 점주님들이 1월분에 대한 것 지급을 다 완료 받았는데요.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패션이라든지 잡화 쪽의 점주님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이 1월 매출분을 빨리 정산을 받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승원 위원** 정산도 있고, 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강경모**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폐점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원 위원** 현재 입점하고 있는 분들이요.

○**증인 강경모** 입점해 있는 분들이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점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 받고 나오셔서 피해 사례를 주신 분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멈춰 주시고요.

김광일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오늘 회생개시신청서를 보니까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으로 대표이사 김광일 씨를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달라, 현재 경영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손해를 끼쳤음에도 어떻게 그 경영을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본인이 관리인이 되겠다는 신청을 합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경영진들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제도의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신청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자료화면 다음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일부 언론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것 다 보십시오. MBK 파트너스가 주요 경영진으로 자구노력을 안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70%의 의견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MBK랑 홈플러스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김광일 증인이 MBK의 부회장으로서도 거기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MBK의 내부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광일** MBK 내부적으로 투자자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주가 이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협의회와 법원하고 협의해서 회생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2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2분 더 드리십시오.

○**김승원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 내부자료에 이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이라든가 또 소유점포 추가 매각 또 점포면적 효율화, 적자점포 폐점을 통해서 회생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김광일 부회장은 김병주 회장인가요, 다 협의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금 회생계획이 짜여질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야말로 주주사 측에서의 참고자료고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고요. 그 협의회랑 상의해서 회생계획서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조랑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야 됩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대표이사이자 MBK의 부회장인 김광일 증인이 당연히 MBK의 회장인 김병주 회장과 충분히 의논하고 혹은 지시를 받아서 이런 회생 신청을 했다,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꾸 위증을 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어떤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려면 오전 질의에, 김병주 회장이지요?

○**증인 김광일** 예, 김병주 회장.

○**김승원 위원** 김병주 회장께서 사재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홍콩에 있잖아요. 시차도 2시간밖에 안 될 것 같고, 1시간인가요. 답변이 됩니까?

○증인 김광일 아직은 저희가 회사랑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모하고 방법에 대해서 수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는 동안 홈플러스가 D등급이 됐나요? 그다음에 단기채권도 지금 D등급으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쓰레기로 전락을 했는데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광일 증인!

○증인 김광일 예.

○위원장대리 강민국 지금 해외로 도피한 김병주 회장 통화되시지요?

○증인 김광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장대리 강민국 통화가 안 돼요? 전화번호 몰라요, 회장하고 부회장이? 정회 시간에 김병주 회장하고 통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책을 낼 것인지 오늘 긴급 현안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회장 전화번호 몰라요?

○증인 김광일 전화번호 압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정회 시간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그걸 보고 다음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든 고발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조주연 증인 잠깐 나오시고요.

그리고 금정호 증인 이쪽에 좀 서 주시고요.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홈플러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득이하게 회생절차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같이 와 있는 MBK의 김광일 증인이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증인 조주연 그 얘기는 저희 자금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담당이 했습니까?

○증인 조주연 예.

○강훈식 위원 오케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광일 증인 나오십시오.

잠깐 멈춰 주세요.

자금 담당이면 MBK랑 가까울 거고, MBK가 그런 판단을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신영증권 담당자한테 들었습니까?

○증인 김광일 신영증권 담당자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자금 담당이 많이 보고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좋습니다.

금정호 증인!

○증인 금정호 예.

○강훈식 위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 직원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증권사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증인 금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합니까?

○증인 금정호 A30가 아까 감독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부적격 등급이 아니라 투자적격 등급입니다. 그리고 A3-도 시장 수요가 적을 수는 있지만 투자적격 등급이고요.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증인 금정호 이게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가 확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주주나 아니면 자구노력 자구책을 강구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훈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증인 금정호 예.

○강훈식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투자 가능한데 '40%밖에 안 됐다' 이 이야기를 자금 담당이 했고, 당연히 조주연 증인은 그런 것에 기반해서 회생절차가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속이고 있는 겁니까?

김광일 증인, 답변하세요.

○증인 김광일 실제로 A3-는 오늘 현재 시장에서 0.1% 미만으로 거래됩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40% 이야기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시장에서 소화가 안 돼 있고, 신영에서 40%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을 믿지요.

○강훈식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러면 A3-가 되면 시장에서 기업어음이 거의 거래가 안 됩니까?

○증인 금정호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 가장 유동성이 좋은 상황입니다. A30에서 A3-가 된다고 해서, 물론 그냥 예측으로는 규모가 줄 수는 있지만 그게 40%가 준다 20%로 준다 이런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고요.

○강훈식 위원 전혀 그렇지 않지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 금융가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부회장님, 이게 회생 신청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증권회사의 대표도, 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A3- 이하가 기업어음이 거래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밑에 등급이 얼마나 많은데. A3-가 기업, 줄어들 수 있지요. 할인율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게 거래가 안 된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MBK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광일 혹시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훈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그 당시 참고했던 한신평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A3-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675억이 잔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6000억대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70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강훈식 위원** 답변이 안 되실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광일** 아니, 저희가 회생절차……

○**강훈식 위원**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니, 본인들이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저질러진 문제를 왜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데 쓰시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계속 여쭤볼게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나오세요.

아까 한창민 위원, 제가 복지위 간사를 해 봐서 아는데……

○**참고인 서원주** 그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참고인 서원주** 조금 전에 한창민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이 사전에 투자확약서를 2015년에 발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저희들이 2015년 8월 20일 날 투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체투자위원회. 투자 의사결정을 했고 그다음 날 투자확약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강훈식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한 7000억 회수해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 서원주** 현실적으로 전체 공정가치 평가로서는 9002억으로 작년도 평가는 그랬습니다.

○**강훈식 위원** 9002억,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강훈식 위원** 기금운용본부 하다 보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잘 불리기 위해서,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몇 가지들을 꼭 말씀 듣고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난해 7월에도 MBK 출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참고인 서원주** 예.

○**강훈식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 투자가 확정되고 동시에 인수에 동원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투자를 확정했는데 3월 4일 날 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MBK의 투자 확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장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인 서원주** 물론 그런 재검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서원주** 투자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거나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 부분은……

○**강훈식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제재를 다시 검토 안 하면 이를테면 기금운용

본부가, 물론 모든 사모펀드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이 나타나고 있고 두드러진 것이 오늘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 안 되면 제가 볼 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계속 여쭙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부회장님이……

모든 사모펀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금액이요 국민연금 9000억, 아까 7000억이라고 치고요 9000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단기채권 판매했던 금액이 5949억 그중에서 개인투자자가 2075억이고요 순운전자금이 8700억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클 2조 2000억입니다. 물론 4조짜리 땅 팔아 가지고 2조 갚으면 된다 이런 취지의 논리로 이야기하시던데……

○증인 김광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죄송하실 것 없어요. 저한테 죄송하실 것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왜 40%밖에 안 된다고 했으며, A3 기업이 왜 안 된다고 했으며, 그리고 시장이 다 교란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이 경영을 잘못한 것도 문제고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기도 하고요.

3분만 더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토클 2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재 출연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회장의 소신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 존재입니까, 김병주 회장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고통받고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세금 몇천억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고 점포들은 언제 돈 들어올지 모르겠고, 자기네들은 하향평가 받아 놓고 개인투자자들한테 채권 발행했고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A3 시장 자체를 다 망가뜨려 놓고 김병주 회장한테 그것도 못 물어보는 게 부회장입니까? 사재 출연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강훈식 위원 2조 2000억입니다.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9000억 메꾸고 뭐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는 송구합니다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두고는 변제가 가능하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취지입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서 MBK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러분들도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 틀고요 MBK 쳐 보세요. 어떻게 돈 버는지 패턴이 다 똑같아요. 방식이 다 똑같아요. 20분짜리 동영상 2개만 보면 이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부회장님 송구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빚을 갚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 되셨어요. 다 그렇게 명들여 놓고 여기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세를 갖고 오셨어야지.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모럴 해저드고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욕을 먹고 그것 관리 못 하는 관리감독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법적인 문제 없다고 또 그것 빼져나가고 이게 악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동자들하고 입점업체들만 피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1조 5000억, 2조 이런 정도 규모로 하지 않을 거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당국에서도 유념하셔야 될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이복현 원장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야당에서 자꾸 지적하잖아요. 지난번에 ‘삼부토건 관계자 100억대 차익 부인할 수 없다’ 이 언급 때문에 이게 엮이고 엮여서, 지금 제가 원장님 말씀 전체를 다 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 다 잘려 가지고 차익을 거둔 사실 자체는 보도도 됐고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면밀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 다 자르고 해서 원장님 말씀이 주가조작으로 인정했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오보라고 여러 매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 건이 이상하게 영부인 외교한 것, 접견한 것 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주가조작에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사 중이니까 철저하게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민간에서 주최하는 콘퍼런스, 아마 원희룡 장관이 참가해서 축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맞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리고 삼부토건 임직원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엮어 가지고 원 장관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줬다, 이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은 아마 그런 업체가 온지도 모르고 계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삼부토건 문제도 지적했고요.

그리고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비판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월권을 행사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듣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상법을 다루는 소관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법무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지난 13일에도 그렇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의요구권 행사 얘기 나왔을 때, 가능성 있다 했을 때 직을 건다 그러셨어요. 위험한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도 오늘 오전에 얘기하셨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금감원의 고유 업무를 고려했을 때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대통령께서 제 임기 초반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명백히 저한테 지시를 한 이슈라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진짜 총대를 메고 깃발을 들고 뛰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주무부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상류에서 물을 틀었다고 하면 영향을 받는 건 하류인데 실제로는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 내지는 자본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낼 수 없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질의 한번 해 볼게요.

홈플러스,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언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홈플러스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보니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이게 ABSTB라고 하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전단채입니다.

○**강명구 위원** 이 단기사채를 판매한 것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홈플러스가, 그 단기사채가 고위험 유동화증권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가들에게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 고령 투자자들에게 많이 팔았던 모양이에요. 이것 판매할 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품 설명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 제대로 했다고 보세요, 원장님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체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위원** 조사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경험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홈플러스가 국내 2위의 대형마트라 할지라도 증권사들이 이런 해당 단기사채가 고위험상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렸다면 고령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몽땅 다 투자해서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도 오늘 진행되는 내용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들어가서 내부 검토한 다음에 금융위원장께 보고드린 이후에 조속히 조치 방안을 국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증권사들이, 특히 노령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부당 권유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히 좀 뜯어 봐 주시고요.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 조사가 끝나면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비단 이번 홈플러스 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펀드 건도 그렇고요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다 보니까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 문제 이것도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ELS 사태를 겪고 그것을 다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개선책도 일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지나친 각종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의무휴무제, 각종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13년간 대형마트 3사의 점포 40곳이 폐점됐고요, 매출은 3조 원 이상 감소했고요, 고용인력도 2021~2023년 6.7%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쿠팡 매출은 2019년도 7조, 2024년도는 41조로 6배가 늘었어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을 모두 합해도 20조가 안 되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쿠팡은 이를 훌쩍 뛰어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통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를 맹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대형마트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일하는 직원이나 납품업체, 협력사들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대형마트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제완화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저희가 규제완화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 현재 관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러분들 잠깐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잠깐만 좀 멈춰 주시면, 최철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님 앞에 나와 주시면……

일단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 제 질의가 끝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좀 넘겨 주시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부실화가 됐어요. 딜라이브 같은 데는 결국 나중에 채권단이 다시 경영권을 회수해 갔고 법정관리 신청한 데들도 있고 1000억이 넘는 순이익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나중에 1000억 넘는 적자 회사로 전환된 다음에 빠져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상장폐지를 한 데도 있고, 대부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MBK 같은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피인수기업들이 다 부실화되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LBO라고 하는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방식들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인수를 할 때도 MBK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은 자신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5조 정도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을 담보로 차입해 가지고 인수자금들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채무자가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걸로 한 7000억 정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조달한 자금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 정도를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자산이나 홈플러스가 나중에 채무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수자금들을 조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갚아 나갈 때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 1분기까지 2조 2000억 정도의 홈플러스 자산들을 매각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국장님, 보통 노조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참고인 최철한**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홈플러스, 피인수회사의 재산들을 매각해서 인수자금의 차입금들을 갚아 나가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넘겨 줘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피인수회사가 채무를 담당하는, 채무 명의로 차입을 해 가지고 인수자금으로 쓴 경우에는 다른 반대급부가 없으면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런 판결을 한 적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아마 MBK 측에서는 1조 원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사무국장님 이 1조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최철한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근 위원 거의 지금까지 1조에 대해서 하나 투자한 것도 없는 거지요?

○참고인 최철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아마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 1조 투자한다, 자기들도 반대급부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전혀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량점포들을 다 매각하고 또 신규점포에는 투자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홈플러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은 계속 없어지고 신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런 회사가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LBO라는 인수 방식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MBK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은 한 2조 2000억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것은 홈플러스의 재산을 가지고 인수자금들을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회생절차도 그런 엑시트의 전략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7조 2000억 중에서 3조 6000억만 팔아도 MBK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들인 돈이 2조 2000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1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홈플러스는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에 본 것처럼 MBK가 인수한 회사들이 대부분 법정관리 적자전환 상장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들이 LBO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피인수회사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로 차입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실제는 더 투자도 하지 않고 그 회사들을 다 망가뜨리는 방식의 LBO 방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대기업들한테는 매출대금을 입금시켜라 그러지 않고 영수증만 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매출대금에 대한 일정 정률에 대해서 임대료만 나중에 지급해라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상인들한테는 매출금을 전부 입금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받은 돈을 가지고 한 30일, 납품업체 같은 경우는 한 60일까지 정산을 해 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임대료 같은 거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 입점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홈플러스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회사 정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시켜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넘겨 줘 보세요.

이럴 때 쓰는 게 민법에 불안의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도 법률가니까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알 거예요. 그렇지요? 매출대금들을 전부 입금시켜야 되는 그런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이렇게 회사 정리절차나 상대방의 신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점상인들은 홈플러스한테 당신들 불안하니까 매출 전부 입금시킬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도 대기업처럼 임대료만 따로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홈플러스 측은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내쫓겠다, 영업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매출대금 다 입금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도 불공정행위의 일종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법상의 항변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거기다가 또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차별적 취급이라고 보여지는데……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입점상인들한테 나중에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데 매출대금을 전부 매일 입금시키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입점상인들 다 잠 못 잔다고 그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급한 시정명령 같은 것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광일 부회장님,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님 나와 주시지요.

사재 출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채권은 원래 회생계획, 선제적 회생계획이라는 거에 의하게 되면 특별히 상거래채권자들이 피해 볼 건 없잖아요. 어차피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걸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재 출연이 필요한 것들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단기채권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654개의 계좌에 한 1900억 정도의 그게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사재 출연으로 변제를 받아야 되는,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요? 논의하셨지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김광일** 지금 재정 지원의 대상은 소상공인의……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 일반 채권자들은 포함 안 됩니까?

**○증인 김광일** MBK 파트너스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대금 지급을 빨리 하고……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 일반 투자자들 이분들은 포함돼요, 안 돼요? 이분들도 다 회사 운영자금 갖다 집어넣고, 퇴직금 갖다 넣고, 아이들 결혼자금 집어넣고 다 이런 분들

이에요. 구제돼요, 안 돼요?

○**증인 김광일** 발표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변제하도록……

○**김남근 위원** 그러면 무슨 사재 출연을 해 가지고 뭘 피해 구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거래채권은 이미 원래 선제적 회생계획에 따라서 다 변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상거래 피해자들 구제받을 게 없잖아요. 사기 아닙니까? 결국 여기 국회 안 나오려는 그런 평겟거리로 사재 출연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기 수사받게 되니까 그 위험 피하기 위해서 괜히 액션으로 사재 출연 얘기한 거지 하나도 사재 출연해 가지고 해결될 게 없는데.

신영증권 사장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해 준 거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성이 있어서 여러 번 상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증권 측에서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들의 우려가 있었지요. 영업적자를 3년 동안 했어요. 영업적자가 1000억, 2000억씩 나게 되는데 우려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영증권과 같은 전문금융기관이?

○**증인 금정호** 한 달에 유동화증권을 한 세 차례 네 차례씩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도 왜 중소기업 운영자금, 퇴직금 그다음에 결혼자금 같은 걸로 이 채권을 산 일반 투자자에게 이런 위험한 채권을 팔았습니까? 이것은 불완전판매예요. 신영증권도 책임질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금정호**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A3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감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자대상인 지배기업들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같은 게 필요하다, 자본시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상법 개정안들이 실행이 돼서 이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하면 돌아오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투자하려고 모색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 계기가 되는 것들이 이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이것을 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독당국의 책임자로서 상법 같은 것들이 거부권 행사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금융위원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LBO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M&A 할 때 자금조달하는 수단으로 쓰는 방식입니다만 최근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례도 한번 보고요. 또 외국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위원장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이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사실 재무적 의미와 관련돼서 자꾸 원금 변제 얘기를 회생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회생계획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캐시 플로(cash flow)가 끊긴 상태에서 원금 변제를 하게 되면 실질에 있어서는 그게 큰 경우에는 거의 절반 내지는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 날릴 수 있는 거고 또 결국은 인가 절차에서 헤어컷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는 제가 사실은 조금 안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 김병주 회장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우리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내지는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거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사모펀드라든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산업의 특정 라이프스팬에 있어서 사실은 일정 기간 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런 기관전용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전후에 이것을 회수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거고.

LBO 관련된 검사와 관련돼서, 저도 이 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까 유통수 위원도 말씀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은 증권사와 신평사만 저희가 검사 중인데 아무래도 검사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보면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한 다음에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님께서 대규모 유통업의 임대차 거래와 관련해서 소위 임대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홈플러스의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한번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대기업과 중소상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좀 봐 보세요, 지금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을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판매대금을 우선 수취 않고도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상법 개정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것은 아까도 여러 번 답변하셨잖아요.

○김남근 위원 말씀 주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 명심을 하고 있고……

○위원장 윤한홍 아까 상법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하셨잖아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말씀한 것에 답변 주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솔직히 제가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위원장 윤한홍 아니, 상법 개정 문제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그 업무 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이건……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괜히 그 직을 견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직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이 건은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왔던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아는데, 직접 업무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장 문제를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법무부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제가 지금 부회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김남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개인투자자가 산 금융채권 있지요, 1970억 654계좌? 이것은 사재 출연으로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증인 김광일 예, 소상공인 대금 지급 목적으로 재정 지원……

○위원장 윤한홍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단기금융채권인데.

○증인 김광일 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아마 많은 비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융위원장께서도 LBO 방식 사모펀드 제도개선 문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김남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매출 정산 방법 그 것은 흠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른 대형 유통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다 점검하셔서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 같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당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도개선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회사에서의 문제점까지도 같이 보고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먼저 이재홍 대표님하고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하는 질의의 핵심은 MBK가 사기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회생신청서 읽어 보니까 회생 신청을 한 주요 이유가 CP라든지 전단채 등의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가장 주요 이유로 신청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정말로 기업회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재 출연 약속이었는데 그것도 내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MBK는 수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런 사례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 대표님!

○참고인 이재홍 예, 이재홍입니다.

○김현정 위원 이재홍 대표님,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할 당시에 홈플러스 측에서 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참고인 이재홍 회사 입장은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를 보고 매우 놀랍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A3-로 떨어지면 100% 자금조달력이 떨어집니까? 아까 다 질의했던 내용들 중의 하나인데요.

○참고인 이재홍 어떤 금융상품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발행상품의 시장 유동성, 전체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A3-로 되면 금리를 좀 더 올리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금조달하는 데 있어서 회생 신청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아까 그런 취지의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영증권 사장님!

○증인 금정호 예.

○김현정 위원 홈플러스를 사기로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하실 거예요?

○증인 금정호 지금 저희가 전체 발행 주관……

○김현정 위원 ‘예, 아니요’만, 언제 하실 건지만 답…… 고발하실 거지요?

○증인 금정호 예,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광일 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다른 증인들께서는 운영자금 조달이 다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MBK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단 삼사 일 만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도 전격적으로 포괄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선제적 회생 신청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기간에 엄청난 금액의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회생 신청한 결과 피해자가 되지 않아도 될 일이 피해자가 되고 있고 영구적 회생 불가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상황인데, 즉 MBK에서는 신종 사기와 같은 이런 행태를 벌여 놓고도 사태 해결이나 어떤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재 출연 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MBK가 그동안 해 왔던 거짓말을 보면 이 약속을 과연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C&M 인수 당시에도 고용유지 약속, 상생협약까지 했지만 3년 후에 다 대규모 구조조정하고요 일부는 하청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ING생명 인수 당시에도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약속했지만 단 6개월 만에 임원들 절반으로 다 정리해고시켰고 직원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 혹독한 구조조정 뒤에 5년 만에 ING생명 인수를 위해서 2조 2000억의 이익을 MBK는 가져갔습니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폐점하고 감원 그리고 점포 매각 등으로 인해서 2015년 인수 당시에 2만 6400명이었던 직원들이 지금은 1만 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간 MBK는 MBK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입점업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애꿎은 이들에게…… 피해자를 수없이 양산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LBO도 마찬가지지만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관했던 금융당국도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홈플러스 회생 신청도 지금까지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돈 아끼자고 피해와 손실을 애꿎은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15년 MBK가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에 MBK에서 ‘2년간 1조 투자한다’ 이런 보도자료 내신 적 있지요?

○증인 김광일 예,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투자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때 투자의 의미는 회사가 현금이 많기 때문에……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안 했지요?

○증인 김광일 결과적으로 시간은 걸렸지만 1조 투자가 됐습니다, 회사에.

○김현정 위원 다음 넘겨 보세요.

그때 1조 투자계획 상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홈플러스 인수 두고 삼파전이 벌어졌어요, 어피니티하고 칼라일하고 MBK하고. 그러니까 1조 투자계획 애초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인수 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결과론적으로.

그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김병주 회장 재산 증식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8000억이었는데요 불과 7년 만에 12조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산 순위 1위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세요.

홈플러스에 투자한 MBK 3호 펀드의 투자 회수 내역이에요. 모두 8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총 7.8조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운용수수료 1조 원 챙겼어요.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한다고 보도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얼마 하는지 모른다고?

○증인 김광일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정 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1조~1조 5000억 또는 이삼 조까지 필요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K 3호에서만도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정도 규모는, 적어도 1조 5000억~2조 정도는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현정 위원 아니, 지금 일단 이것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사재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김광일 소상공인들 대금 지급 목적으로……

○김현정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만 답을 하시라고요. 사재 출연 규모에 대해서 1조 5000억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김광일 부회장님 MBK 부회장이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인 MBK 지분 몇 % 갖고 계세요?

○증인 김광일 한국에 있는 MBK 지분 28%인가 29%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것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증인 김광일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인은 사재 출연할 용의 없으세요? 부회장이고 지금 홈플러스 대표 아닙니까? 없어요, 있어요?

○증인 김광일 .....

○김현정 위원 빨리 답하세요.

○증인 김광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 1조 원 투자한다고 보도자료 내고 인수전 유리하게 한 다음에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할 생각이면 정말 오산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것 끝나면 바로 김병주 회장한테 전화하셔 가지고요 사재 출연 규모, 사용처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정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거예요?

○증인 김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전화 안 하셨어요?

○증인 김광일 전화 못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왜, 안 받아요?

○증인 김광일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전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정 위원 정말 김광일 부회장님하고 회장님 둘 다 사재 출연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하시는 금액도 정말로 상거래채권, 아까도 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다 변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ABSTB라고 카드대금채권 관련해서 이것 상거래채권이냐 금융채권이냐고 했을 때 ‘회생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답변했다가 ‘변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두 말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상거래채권은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변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사재 출연하겠다는 것은 정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다른 전단채라든지 CP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라든지 다른 카드사들은 회생법원에다가 ABSTB라는 카드대금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신고를 한 곳도 이미 있습니다. MBK는 그것에 대해서 신청할 용의 있으세요?

○증인 김광일 저희들은 채권 신고를 받아 주는 입장이고요.

○김현정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카드사나 증권사는 이미 다 했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서 상거래채권,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해서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지금 주저하고 판단을 못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ABSTB도 다 변제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다시 말 바꿔 가지고.

○증인 김광일 회생절차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정 위원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해 가지고 본 위원이 회생법원에다가 저렇게 질의를 했더니 회생법원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상거래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결정한다. 채무자가 홈플러스예요. 그리고 상거래채권이라고 신고해야지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재까지 출연해서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 상거래채권으로 신청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지요, 이 자리에서.

○증인 김광일 제가 저 답변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죄송합니다.

○김현정 위원 이것을 왜 모릅니까? 여기 지금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증인 김광일 제가 변호사.....

○김현정 위원 휴일 삼사 일 만에 회생 신청까지, 이사회까지 열어 가지고 하셨던 그 대단한 MBK가 저런 내용도 모르고 했습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기로 또 ABS 전단채 발행한 것도 아까 김남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2024년 12월, 1월 2월 달에 5000억을 발행했어요. 111건의 ABS 전단채를 발행한 곳 중에 가장 많은 곳은 3개월 안에 다 발행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이미 회생 신청하려고 다 계획해 놓고 했다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김병주 회장한테 연락하여 가지고 1조 5000억 출연할 용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출연할 건지 그리고 ABSTB 상거래채권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김광일 예.

○김현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사실관계가 제가 이해하는 바와 다른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한마음이에요. 똑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부회장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일단 들어가시고.

회의 진행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면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잠깐씩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김광일 부회장 나오세요.

증인, 오늘 MBK 때문에……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서 다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강민국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먼저 한 가지……

증인,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SPC 만든 것 있지요, 한국리테일투자?

○증인 김광일 예.

○강민국 위원 왜 SPC에 홈플러스에서 매년 1000억 이상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SPC에 1000억 이상의 기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광일 그 부분 혹시 제가……

○강민국 위원 아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서 필요시 부당지원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증인, 오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피한 김병주 회장하고 통화했어요?

○증인 김광일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스스로가 청문회 필요성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 김병주 회장이 나와야만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홈플러스 투자는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기업회생 할 때 이사회 할 때 김병주 회장에 보고 안 했어요? 김병주 회장이 결정했지요?

○증인 김광일 이사회 멤버가 아니십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김광일 부회장은 MBK 부회장이고 월급도 다 MBK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의를 했지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강민국 위원 아니, 위증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증인 김광일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뭐라 했어요, 김병주 회장이?

○증인 김광일 일단 저희 홈플러스 담당하는 팀에서의 의사결정이고 지금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강민국 위원 오늘 분명히 본 위원이 시간도 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통화도 안 했고 김병주 회장, 13조 가까이 재산을 가진 분이 구제책에 대해서 아예 전혀 계획이 안 잡혔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맞지요?

○증인 김광일 회사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강민국 위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고 일주일 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말장난하려 오셨어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송구하다는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아까 부실경영에 대해 자꾸 코로나 평계를 대던데 인수 당시 2년 내에 1조 투자하겠다는 약정도 했고 보니까 기업 건전성을 위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세일 앤드 리스 백 같은 경우도 맞아요. 가좌점 등 16개 점포를 매각하고 또 이것을 모두 재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1조 3142억을 현금 차입을 해요. 지금 16개 매장을 폐점하고 있고 또 10개 매장은 폐점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부실경영이 된다는 것을 MBK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모른 겁니까? 그러면 기업 건전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내가 이러한 사례를 보니까 예전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채 1400%가 넘는 부실회사에서 신용평가등급 하락했다고 자금조달 경색 사유로 단 5일 만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 2월 달에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아예 무시하고 2000억에 달하는 단기물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양그룹에서 자금난을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시했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받았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민국 위원** 또 LIG건설 회생 신청했던 LIG건설 부도 10일 전에 회사채 발행 지시한 구본상 회장 보니까 징역 4년 받았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두 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 완전 똑같은 사례잖아요.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말씀하신 두 건 내용 저도 감독원장 지위로서 또 전 직장에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강민국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간사님 말씀 포함해서 다 유념해 듣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김병주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던데 한국에서 13조의 돈을 벌었는데 미국 같으면 증권선물거래소나 미국 법무부·검찰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한국 검찰하고 미국 증권선물거래소, 미국 검찰과 같이 공조하십시오. 아시겠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강민국 위원** 미국 시민권자니까 당연하게 해야지, 한국에서 고발해야지. 서로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 홈플러스가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회생 신청을 급하게 했는지 알고 보니까 홈플러스 인수하는 데 활용된 3호 블라인드 펀드 이게 올해 10월 달에 만기예요. 3호 펀드가 투자한 오렌지라이프, 두산공작기계 등 회사 매각을 진행해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었는데 지금 남은 게 보니까 HKBN입니다. 홍콩 통신업체지요. 홈플러스하고 네파만 청산하면 3호 투자 펀드 기업부터 모든 수익을 회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MBK 행태입니다. 기업이 망가지든 노동자가 죽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 가관인 것은,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게 뭐니까? 홈플러스 수익구조상 부담되는 인건비, 리스료 또 금융채무 탕감해서 재무구조 개선해서 전부 다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이를 통해서 법원이라는 남의 손을 빌려서 홈플러스 경영에 손을 뗄고 청산함과 동시에 회생절차로 개선된 재무구조로 고액의 매각을 실현하겠다,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수작입니다, 수작.

금융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하여튼 좀 예외적인 형태이기는 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예외적인 게 아니라 앞에서 LIG나 동양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철저하게,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민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MBK 먹튀 방지법이 필요하다. 즉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LP에 대한 정보는 보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필수 제출서류인 정관 내용 중에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마저 제외하고 제출하고 아래 최소한의 자료조차도 지금 금융당국에서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통상적 제출서류에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명의든 제가 대표발의하든 이번에 MBK 먹튀 방지법…… 지금 사모펀드가 외국계·토종 합쳐서 1000개가 넘어요. 즉 100조가 넘는 돈으로 지금 하는데 이 사모펀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빠른 법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정무위원회 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민국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알겠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공과의 공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는데, MBK처럼 악질적인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당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광일 중인, 지금 구제책이 없다는 거지요? 김병주 회장에 의한 구제책이 없다는 거지요?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광일 회생을 통해서 회사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전제하에서 저희가 변제든 투자든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됐고요.

그리고 아까 위증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질문에서 MBK 인수하는 것 이게 보니까 세금 회피하려고 탈세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했더라고. 홈플러스 자회사 홈플러스홀딩스 인수한 후에 이름이 바뀌었지요. 홈플러스테스코인데 홈플러스스토어즈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홈플러스스토어즈를 통해서 3조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홈플러스 인수자금으로 쓴 것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본 위원이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한 게 맞지요?’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광일 왜냐하면 인수대상인 그 당시의 홈플러스란 제일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자산이 많은 홈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 홈플러스는 인수대상입니다. 테스코가 까르푸 인수하면서 지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인수에 이런 특이한 방식이 없어요. 결국은 세금을 탈세하는 목적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김광일 대표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MBK 경영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그때 고려아연이었고 —또 사모펀드 먹튀 운영에 있어서도, 버스 준공영제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

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금감원장님께도 순기능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이런 악질적인 투자 행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기억 납니다.

○**김용만 위원** 그때 금감원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그래서 연구용역도 발주했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임직원이 1만 9500명 수준이고 입점기업이 8000여 개, 납품업체까지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혹시 김광일 대표님, 홈플러스 회생 이후에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상 운영하실 겁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한테 권리가 없고 법원의 회생계획 승인받는 것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 운영하는 데……

○**김용만 위원** 일단은?

○**증인 김광일**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회생법원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광일**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도 가능성은 두고 있는 거예요?

○**증인 김광일** 그것은 채권자협의회 의견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회생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라요 부도날까 봐 급히 회생을 신청한 거거든요.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금융조달 비용이 상승한다고 예상돼서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신용등급 하락이 기업 어음 발행이나 금융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없다는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량채로 인정이 되고 이게 기업회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인과 관계가 좀 약해요.

그런데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생 신청을 자정이 조금 지나서 0시 3분에 하셨어요.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내용 잘 모르세요?

○**증인 김광일** 그날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 가면서 신청서를 준비하고 준비된 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을 겁니다.

○**김용만 위원** 당일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24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결정에 걸린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광일** 제가 이번에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들은 바로는 하루 만에 나온 게 가장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평균 시일이 47.4일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위기설이 있었던 건설사들도 보면 신동아건설이 1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4일, 오늘 얘기 나왔던 삼부토건도 10일 소요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렸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더 들여다봤어요. 통상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배당팀에 접수가 됩니다. 팀에서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대표자 심문절차라는 회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홈플러스 신청 과정을 보면 자정에 신청한 사건을 바로 사건배당팀에 새벽 1시에 공식 접수해서 재판부로 넘겨요, 1시간 만에.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몇 시에 인지했는지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아침에 홈플러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심문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시에 심문이 열렸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10시에 심문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평균 한 47일 걸리는 것을, 이게 심문이 바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김광일** 그건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심리절차에 바로 참여를 합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 변호사님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준비했고요.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보통 심리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시에 결정이 나고 11시쯤인가 심리 참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그 부분은, 저희는 그날 경황이 없어서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갔고……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게 있는데 메리츠금융그룹 주요 채권사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여기도 회생 신청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기업회생은 위크아웃 같은 것들 채권자랑 논의하고 진행하지요. 논의하셨어요?

○**증인 김광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당장 상거래 못 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바로 법원으로 갑니까, 채권자랑 상의도 안 하고?

○**증인 김광일** 송구하지만 작년에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요.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메리츠금융그룹에서 1.2조 원 차입한 것 이게 고금리, 금융부채에 대한 차환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습적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광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월 4일이라는 날이 입점업체 1월분 판매대금 지급하는 날이었지요?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하필 3월 4일에 회생 신청을 또 해요. 이것도 생각한 바 없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김용만 위원** 경황이 없고 송구하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맨날 송구하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것 기업회생 신청 사유도 석연치 않고 채권자 논의도 안 하고 자구책도 없고, 이게 대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지금 정상 운영하겠다, 매각 안 하겠다. 매각할 것 같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저 3분 더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김용만 위원**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 매장 폐점됐습니까?

○**증인 김광일** 16개 매장 폐점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김용만 위원** 맞아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차입매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비교를 해 보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래버리지 투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기 돈은 안 쓰고 은행빚 최대로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 하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MBK가 똑같은 것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7.2조 원 인수자금 중 2.2조 원 투자자펀드로 마련하고 5조 원 정도가 지금 다 차입해 가지고서 진행한 것으로 2015년에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3.1조가 저희 지분 투자금액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고 2016년부터 23년까지 지출된 금융권 이자비용 얼마예요?

○**증인 김광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회계기준서상에서 보면 약 3조 원이에요, 3조 1000억 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광일**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5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5000억이고 이자가 3조입니다. 돈 벌어서 이자 갚을 때, 돈 버는 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갚을 돈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까 16개 팔았다고 했지요? 알짜매장, 부동산 팔아 가지고 이자 갚을 수밖에 없지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3조에는 부동산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됐고요. 2015년 기준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시지요, 정확히. 그때는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MBK에서. 이제 와 가지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홈플러스의 2016년부터 20년 2월까지 장단기 차입금 내역 보면 한 2조 7000억 원 감소

했어요. 같은 시기에 매각한 부동산자금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MBK가 영업 이익으로 대출이자 높고 인수대금은 매장 판 결로 높아 온 거지요. 그러니까 점포가 줄고 매출이 줄고 인력도 줄고 경쟁력도 없어지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MBK가 그 기간 동안 챙겨 간 돈 좀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지급한 배당 규모 어떻게 됩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 보통주가 받은 배당은 0원이고요. 우선주가 현금 배당을 매년 300억 안팎 받은 게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10년 동안 배당 규모가 7000억이고 24년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 1조로 늘어나 있어요. 홈플러스 순손실 계속 증가하는데 배당하고 운용보수만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부르시겠어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배당받은 건 없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좀 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MBK가 계속 경영을 해 왔는데 이게 MBK 파트너스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제가 김병환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기능만 보고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다음에는 김광일 부회장님 곧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다가 하셔도 되고요.

소장님, 요새 개미투자자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 들어 보셨지요?

○**참고인 김근익** 예.

○**신장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소위 지배주주의 전횡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배주주의 전횡이고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권리와 보장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시장감시위원장님의 역할인데요. 여기가 개미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한 곳이냐, 아니면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냐.

그런데 아까도 표 보여 드렸다시피 2023년도 5~7월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 정황을

그 당시에 적출을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감시위원회장님이 답변을 안 한 게 주식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저 정도, 최근에 최소한 확인된 게 110억대 주가조작이 있었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지 못하는 시장이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주식시장, 국장에 있는 개미들에게 가는 겁니다.

저는 시장감시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적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신뢰받는 시장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주신다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장은 주식거래 세력의 놀이터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정도는 적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하고 싶은 개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못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김근익**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별 건은 아니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항상 1년마다 한 번씩 숫자로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여 건 가까이 적출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그 숫자에 삼부토건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적출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참고인 김근익**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출했는지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랬고요.

**○신장식 위원** 그만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장감시위원장님의 말씀이 국장의 개미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적출을 못 하는 무능,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돼도 한국거래소가 그것을 적출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시그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인 김근익** 그래서 제가 일반론과 통계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개미들 속 터지는 것 안 들리는가 모르겠는데요 답답합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시장감시위원장으로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말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것 다 조사하고 수사하면 언제 적출했는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근익** 구체적으로는 나올 겁니다.

**○신장식 위원** 여기까지 하시고요.

금감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부토건 관련해서요 2024년 9월 달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종료하고 10월 달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이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9월 이전에는 삼부토건 건 관련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 이첩받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최초의 이첩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저희가 어떤 건을 조사 단계 내지는 조사 전 단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신장식 위원** 그 이전에 거래소에서 이첩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24년 9월 이전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미 공론화돼서 드러난 건 이외의 다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적출됐는지 이첩받았는지를 끝까지 두 분 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첩이 됐으면 그게 조사가 착수된 건데 결국 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신장식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에 있는 개미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건도 뭐가 나오건 간에 저희가 무조건 강력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장식 위원** 보세요. 1년간의 공백 기간에 거래소는, 금감원은 뭐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미들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까를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K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정부는 어쨌든 개미들 보호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김광일 부회장님, 아까 전단채 관련해서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재 출연 등 의사가 있다 없다, 사재 출연 등을 통해서 보호할 의사가 있다 없다?

○**증인 김광일** 전단채 채권자들에 대해서 회생절차 내에서 저희가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회생법원의 답변이 있었어요.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다 없다? 회생절차 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 안에서 하신다면요.

○**증인 김광일** 그 부분은 법원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법원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의 의사를 왜 법원이랑 상의를 해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그걸 왜 법원하고 상의하십니까? 내가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를 법원이랑 상의하세요? 내가 국밥 먹을지 냉면 먹을지 법원이랑 상의하실 겁니까?

○**증인 김광일** 어려운 점은 홈플러스의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뒤에 증권사가 유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9조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돈의 흐름입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한테 물품 다 받았어요. 그리고 ABSTB 매입 피해자의 대금은 증권사로 SPC로 카드사로 납품업체로 다 흘러갔어요. 홈플러스는 물건도 받았어요. 그러면 홈플러스의 물건과 납품업체가 받은 돈을 지금 ABSTB 매입 피해자가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겠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으로?

○증인 김광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보세요. 본질이 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결과적으로 돈 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표현도 하지 않겠다.

3분 마저 주시지요.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로서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무슨 회생절차 안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 다 말뿐이잖아요. 사재 출연의 대상·시기·규모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2대 주주인 김광일 부회장님 사재 출연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말뿐이잖아요.

하나 더 가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신영증권, 이것 보세요. 2월 25일 날 홈플러스에서 신용등급 하락 노티스 받은 그날입니다, 2월 25일 날. 820억, 신영증권에서 주관해서 발행하셨지요?

○증인 금정호 예.

○신장식 위원 이것 누가 보면 신영증권과 MBK가 같이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다음 것 좀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홈플러스 측, MBK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용등급 떨어지면 자금조달 안 된다고 신영증권 측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선제적 회생 신청,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신영증권은 MBK 측이랑, 갚을 의사가 없고 갚을 계획도 없는 돈을 빌린 겁니다. 공범으로 보여요.

○증인 금정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식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보세요. MBK 측에서는, 홈플러스 측에서는 신영증권 때문에 선제적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 아니에요?

○증인 금정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장에서 지금 A3-라고 해서, 등급 떨어졌다고 해서 자금조달 못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업회생 신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신장식 위원 그런데 MBK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면 신영증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사적·민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 정무위원회 끝나고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숙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신영증권 사장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공모를 한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검토하셨다가 지금 안 하고 실효적 대책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 대책을 얘기하셔야 되고 리테일 했던 증권사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과 함께 MBK를 상대로 해서 뭔가 액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 있으세요?

○**증인 금정호**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끝나고 가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시기나 이런 걸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MBK와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증인 금정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K와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날 지경이거든요.

○**신장식 위원** 왜 그런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증인 금정호** 저희는 등급이 떨어질 것도 몰랐고 그리고 기업회생을 이렇게 빨리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시장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은 제가 회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큰 피해자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 투자자들이지만 신영증권도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주나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한테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모종의 대책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하면서 일부 제휴업체 VIPS나 CGV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소비자 보호조치와 대응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건 공정위원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품권 중에서 지류식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용처에서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홈플러스는 받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어쨌든 정상영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쓸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환급을 위한 자금을 예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만약에 환급을 요청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충분히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기 위원** 소비자에게 와닿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상품권 문제겠고 또 하나는 납품업체들에게 민감한 대금 정산 지연 문제겠지요. 그렇겠지요?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 상품권 사용을 보장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은 안 돼 있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발의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전반적인 상품권을 통괄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기업회생절차 진행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상품권 발행업체가 일정 비율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한다든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난번에 저희들 티메프 사태나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작년에 법 시행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지류식 부분까지 커버는 못 하고 있는 한계는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김병기 위원** 해외 사례를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유통업체가 도산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거나 별도의 보증기금이 운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셨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현재 방법 중에 저희들이 받은 자금을 100% 별도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일선 현장을 보면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1월 대금부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현재 3월 14일 기준으로 469억 원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 거래분 중에서는 3월 14일 기준으로 469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위원** 결국 대금 지급 지연이 지속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대응 같은 건 있습니까?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중소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방향으로 홈플러스 측에서 이미 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김병기 위원** 그 계획은 오늘 하루 종일 들었지만 제가 보면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전혀 없는 공허한 얘기니까요. 그것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없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자리에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님의 나와 계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마음 출이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으실 테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아무래도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은 말씀하실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제 시간 드릴게요. 입점협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 그런 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충분히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3분 정도 더 주면 한 5분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증인 강경모**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1월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 않은 점주님들이 가장 애가 많이 타실 분들입니다. 식음료와 리빙 일부 매장들은 12월 13일 이렇게 각각 나눠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숨통은 트였지만 아직 지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소외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빨리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회장님이 사재 출연 의사를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1월 매출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 빨리 정산 지급되는,

그렇게 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측이 공문을 통해서 입점업체 점주님들의 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에 대한, 어쨌든 그 대금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세금계산서가 보통 익월에 5~10일 사이에 발행이 됩니다. 굳이 말일에 대금 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모였고요. 대금 지급일이 익월 말이 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생채권으로 정산금이 둑이면서 피해를 본 모든 점주님들이 현재 홈플러스 측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결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점주님들이십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발생된 매출금이 최소보장임대료 혹은 수수료와 관리비 등이 청구되어 빠져나가고 익월 말에 점주님들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으로 홈플러스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정산 방식으로 점주 개인의 판단으로 결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발생된 매출을 홈플러스 측에 늘 공유를 해서 월말에 최소보장임대료와 수수료 관리비를 지급하는 후정산 방식으로의 변경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호를 목적으로 보증금과 정산대금에 대해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계시는 홈플러스 점주님들의 입을 대신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홈플러스를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분들께도 제가 입점 점주님들의 입을 대신해서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점주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늘 고객님들을 만나던 그 자리에 아직 점주님들 그 자리 잘 지키고 계십니다. 많이 찾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시간 더 드릴까요?

1분 드리세요.

○**김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홈플러스 사태 보면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위기를 넘어서 소비자와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지난 13일 한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법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안입법으로 자본시장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같은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계부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똑같이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M&A, 물적분할 시에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으로 해서 비교적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도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입법으로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국제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상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해 보니까 2019년에는 한 8개사 정도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 기업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77개사, 무려 10배가 늘어났어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2018년에 현대차에는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 원의 주주환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주주 충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헤지펀드들에게 과도하게 경영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계부처들도 신중한 입장을 표시를 한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언급했을 당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의 표명이었지 이렇게 주주 충실을 의무화하고 과도하게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에 노출되는 걸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는데 굳이 한경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한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국내 상법 교수 열 사람 중 여섯 명이 상법 개정안 문제가 있다 반대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직을 걸고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근본 배경이 뭐예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혹시 설명을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훈 위원** 임기가 얼마 남아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떻든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김상훈 위원** 임기가 얼마 남아 있느냐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 임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임기 2개월 남았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3개월쯤 남은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직을 걸 만한 남은 임기도 아니구먼.

답변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저도 사실은 성안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낸 안이고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좋다고 이 자리 정무위를 빌려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된 이후 그리고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에는, 기업들 측에서 사실은 상법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이건 이런 유의 개혁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다는 배경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정부 내에서 단일대오를 갖춘 것과 달리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하고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관계부처하고 입장을 좀 조율하고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훈 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다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대체입법으로 내놓은 건데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그냥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너무 격하게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가 너무 정쟁 이슈화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논의의 장이 되게 편적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왜 자본시장법 내지는 상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기업 대 반기업의 약간 묘한 대결구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김상훈 위원**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대안입법으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 여러 가지 다른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그 말씀……

○**김상훈 위원** 굳이 그 표현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경영계라든지 상법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이 완전히 무색해졌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도 사실 경영계라든가 상법 교수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의 충실험무는 우리나라 만 좀 예외적이지 않은 선진국에서 어쨌든 해석이라든가 운영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 상황에서 어쨌든 그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예외를 둔 것이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사회 담론으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의요구권 관련된……

○**김상훈 위원** 그래서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게,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국내 소액주주 등 여러 다양한 투자가가 있을 텐데 그런 투자가들의 입장을 일일이 어떻게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소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3분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제기해도 그 소의 이익이 법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의 남발 우려가 적었지만 이제는 주주들에게 소의 이익이 직접 돌아간다면 누구라도 소를 남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발언 자체는 여러 관계부처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 그 발언의 결이 너무 강해요. 금감원장의 입장에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경영계라든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프로라는 경제전문 유튜버가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결과적으로는 헤지펀드들에게 경영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이 남아날 수가 없다,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다수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그런 기업의 걱정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충분히 대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의 우려라든가 과거 법원의 해석으로 사실상 이사 충실의무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든가 물적분할 내지는 일감몰아주기 또는 자산의 고가·저가 양수도 같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 작동되는 원칙이지 대부분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경영판단 원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제한된다거나 이런 유의 우려들은 사실은 충실의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상훈 위원** 같은 정부기관의 금융감독을 맡는 수장이 여러 관계부처하고 상반된 의견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저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상반된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공히 의견을 모아서 추진했다는 것이고 지금 상법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김광일 증인,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오전 질의 내용에서 주요 간부들이 3월 1일까지는 자구책을 찾다가 3월 1일부터는 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빠르면 3월 1일 오후나 3월 2일 오전부터 실무적으로도 이사회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조금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3월 3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증인 김광일** 서류 작업은 이사회 전에, 그러니까 3월 1일 저희가 회생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예.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빠르면 3월 1일 오후 아니면 3월 2일 오전부터 실무적으로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했을 거고 공식적으로는 3월 3일 날 이사회 의결한 뒤에 그 서류 절차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사회에서 부결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은 언제 진행이 됐어요?

○**증인 김광일** 28일 날 김판기 변호사와 미팅을 했고요. 그날부터 검토를 같이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자구책을 찾다가 3월 1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요 간부들은 정리했다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28일 날 이미 김판기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이런 절차를 준비했다는 것은?

○**증인 김광일** 28일에는 저희가……

○**이인영 위원** 그래 가지고 필요한 서류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28일, 3월 1일 이런 때?

○**증인 김광일** 28일 날 안내를 받았고요. 이를 동안은 저희가 자력으로 부도 안 내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3월 1일까지라면서요.

○**증인 김광일** 28일, 3월 1일 이틀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상 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한 조력은 28일부터 시작한 거네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어떤 계약서 같은 데서는 그거 왜 3월 3일 이렇게 돼 있지요?

○**증인 김광일** 저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게 왜 3월 3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8일 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거 내용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금감원장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사회 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이전에 법적 대리인의 행동이 사실상 계약의 효력을 가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검사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개 기업,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25일 알았고 27일 날 확정이 됐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런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협의는 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실은 알고 계세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신평사랑 일하는 방식은 정기 평정이기 때문에 평정 한 3주 안팎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 드리고요. 항상 똑같은 자료 요청하십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일단 분기별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증인 김광일 반기별로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그러면 반기 언제예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아마 2월 초중순 정도에 자료 드린 것 같고 요청은 아마 1월 말쯤 온 것 같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략 이렇게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광일 자료 요청은 하지만 신평사가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나 인디케이션(indication)은 주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검사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노티스가 됐으면,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됐으면 그 담당자가 자기만 알고 간부들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ABSTB인가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신영증권이든 어디든 이런 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감지했으면 ABSTB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 하거나 미뤄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았는데도 ABSTB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970억 조성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종 820억 됐다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명백하게 이상한 짓을 한 거지요, 사전에 감지하고도 그랬으면.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과정을 검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이게 사기판매냐 불완전판매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기업회생절차라는 것을 악용해서 혹은 오남용해서 부채를 청산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쓰는 건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금감원장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경과라든가 이런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앞에 제가 휴일 날 뭔 서류 준비가 가능하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능한 영역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치면 내용적으로 그동안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을 죽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를 내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업회생 단기완성 속성반 이런 것을 출업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기업 현황, 재무상태 이런 기본 서류 정리하는 데도 이를, 재무상태 분석하는 데도 이삼 일, 청산가치와 계속가치 관련해서 리포트 작성하는 데도 이삼 일 그리고 기업회생 실무 회계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보통 보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것을 주 업무로 담당했던 산업은행 같은 데 의견을 보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서류가 완전 날림으로 되지 않는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량진이든 어디든 단기완성 속성반 이런 데를 졸업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를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미리 준비했을 것 같은 가능성, 정황 이런 것들이 좀 보인 거 아니에요?

이른바 홈플러스 업데이트 이런 거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이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오버랩돼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업데이트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업데이트해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25년 1월·2월, 24년 12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상당히 뭔가 준비됐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ABSTB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두세 달 후에 부도가 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전체적인 정황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 그냥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완전판매나 사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심지어는 법무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도 3월 1일은 일을 안 하셨어요. 3월 1일은 일을 안 하셨고, 그러면 3월 2일은 그냥 구두로 사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월 3일 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런데 이사회 의결 없이 사전적으로 실효적으로 법무 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과연 허용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결과를 국회에도 알려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쟁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면 김광일 부회장님 그냥 계시지요.

○**박상혁 위원** 예, 계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MBK가 쏘아 올린 정말 엄청난 파장이 또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파장은 첫 번째로 투자자 피해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훼손에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광일 증인이 신영증권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영증권이 인수한 후에 그 이후에 판매된 ABSTB 리테일이 누구한테 갔는지 제가 알 바가 뭐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식 답변 하셨지요?

○**증인 김광일** 알 바가 뭐냐가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그것을 당연하게 신영증권이 인수하고서 자신들이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판매를 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다양한 개인 피해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까의 그 답변 태도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 않나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이해했던 바는 거래하기 전에 이미 수요처를 확보해 두고 신영증권이 저희 매입채무유동화 물량을 가져간다고 이해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결국 그 문제도 아까 김현정 위원님 등등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훼손된 신뢰가 다시 복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결국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노조에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고용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욱 크게 나타날 거고 많은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떠안게 될 겁니다.

제 번째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겁니다. 사모펀드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는 제도일 텐데 결국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가 앞으로 청문회도 열게 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MBK가 한국 사회 자본시장에서 존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김광일 증인,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 신청하고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에 들어가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비용을 예납하거든요, 많은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비용 예납은 언제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3월 4일 아침 9시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보통 심문기일을 정하면서 채무자한테 심문사항을 주거든요. 심문사항은 언제 받으셨어요?

○**증인 김광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이번에, 아까 김용만 위원이 보여 주셨던 것처럼 01시에 배당이 되고 10시에 기일이 지정되고 한다라는 것은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아요. 이것은 법원과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와 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해 봤지만 아주 큰 대기업들에 관련된 회생결정, 아까 비슷한 사례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어요. 청문회가 열리면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담당자들도 다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01시에 배당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법관들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MBK만 이런 특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양 간사님,

위원장님께도 꼭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증인,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매일경제에 난 기사인데 메리츠증권으로부터 한 1조 3000억 원 대출받으셨지요?

○**증인 김광일** 예, 맞습니다. 흠플러스가.

○**박상혁 위원** 예, 흠플러스에서. 그런데 12개월 내에 2500억 조기상환 못 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특약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조기상환이 항상 모든 대출에는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신평사 대표님들 그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는 데요.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특약이 있다는 것? 신평사 두 분 다.

○**참고인 김기범**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시되거나 보도가 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참고인 김기범** 이것은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요.

○**박상혁 위원** 신평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데?

○**참고인 김기범** 예, 그러니까 신평사한테 따로 언급을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신평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참고인 김기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협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 당사자 간에 어떤 조건인지 이러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평사 정보보고서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인 김기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요, 그것은 고객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자체만을 보는 거고요.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까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라고 할까요 너무 안일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모펀드에, 특히 LBO와 관련되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 규제의 필요성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우리나라 LBO 실태조사나 리스크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관련되어서 일본이라든지 IMF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메모라든지 보고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이 따로 보고서를 내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황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일부 보고서들은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뉘앙스로 비쳤다면 죄송하고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당국에서도 이런 부

분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금감원은 있습니까? 금감원은 해당 사항은 없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도 현황은 보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 자체를 큰 주제로 다루거나 그렇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안질의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펀드 인수 전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어떤지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딱 한 줄로 답변이 왔어요, ‘글로벌 자율규제 및 최근의 규제 동향 등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아니, 사모펀드와 LBO 방식에 관련된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MBK가 처음 사례도 아니고 그런데 저 답 딱 한 줄을 주셨어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챗GPT한테 양식을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 주고 국제 비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챗GPT는 저한테 이런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양식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챗GPT라는 게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비교도 해 보고 어떤 건지 용어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저것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아까와 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태도, 오늘도 여럿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특히 MBK도 문제지만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끝나고 할까요, 지금 드릴까요?

○**박상혁 위원** 마지막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러시지요.

○**박상혁 위원** 그리고 김광일 증인, 제가 이것 회생신청서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33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사업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관련해서 카테고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등등 매출 반등을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죽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고, 34페이지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막혔습니까, 완전히? 차단된 겁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 당시 신청 직전의 한신평 자료를 보면 저희가 A3……

○**박상혁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병주 회장도 충분한 자산의 담보력도 있고, 자산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있고 유사 사례도 많고 한데 이렇게 길이 막혔다,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이 막혔다라고 단언할 만큼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증인 김광일 답변해도 괜찮을지요?

○박상혁 위원 예.

○증인 김광일 그러니까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이 돌아오고 A3-가 그 당시 한신풍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시장에서 700억가량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발행이 사실상 안 되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박상혁 위원 유사한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그것은 다 이미 얘기된 거고요.

○증인 김광일 한신풍에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통계치를 낸 거라서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막혔다라는 것은 이미 단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막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불완전판매와 사기판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기판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기판매가 되면 단순히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MBK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국민연금 본부장님,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사기판매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MBK하고는 절대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안 하실 거지요?

○참고인 서원주 예, 법규로 인해서 그런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명백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아마 복지위에서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서원주 예.

○박상혁 위원 한꺼번에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답변이 아까 그렇게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느냐를 찾다 보니까, 지금 챗GPT에서 저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최신의 자료를 얻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것 또 그 앞의 고려아연 사태라는 것 이런 것 계기로 해 가지고 한 20년 된 저희들 사모펀드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표현한 것은 오늘이 이런 자리다 보니까 마치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는 사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박상혁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조금 그 순기능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MBK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인수해 가지고 기업가치가 올라간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몇 개 되는지.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만 조사를 해도…… 지금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 MBK가 인수한 것만 가지고도. 인수하는 게, 원래 기업가치를 올려서 되팔아서 이익을 취한다는 게 사모펀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현금 빼먹고 자산 빼먹고 알맹이만 빼먹고 회사가 망가진다, 지금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MBK를 포함해서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간 사례 그다음에 기업이 파산된 사례 그런 정도 조사는 간단하게 될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님들한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김광일 부회장님 저쪽으로 가시고, 가시는 동안 신용평가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다 이런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또 서류를 보강했다 이런 언론 기사를 제가 본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한 이야기, 그런 소통들을 실제로 하셨습니까? 제가 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기범 지금 홈플러스랑 얘기가 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섭 위원 예.

○참고인 김기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신용평가 관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띄워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소통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참고인 김기범 예,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다 체크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광일 중인께서 아까 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소통했는데 왜 김광일 부회장님은 그 충분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증인 김광일 저희에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고서 자체를, 신청서 자체를, 내부 보고서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작년에 부채 비율 3000%고 이번에 1400%고 우선주 회계상으로 자본 처리하면 460%입니다. 매출이 2.6% 컸습니다. 슈퍼마켓 부문이 지금 수천억대 가격으로 본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앞서서 신용평가 기준표를 한번 보여 드렸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번·2번에 대해서는 중인께서도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중단기 관련한 재무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 단기 영업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중단기라고 하면 보통 5년이니까 일년 사이의 영업이익을 이야기하시면서 재무구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1·2·3번 자체에 대해서 넉넉하게 중인께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능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아까 오전에도 제가 덧붙여서 그게 저희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김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자들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전단채를 발행하고 그간 중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로 대응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책임한 무능함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상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장님의 경영 능력은 굉장히 유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든 아니면 거래처든 아니면 채권자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홈플러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고 계시고, 직접 책임을 맡고 계신데 이 정도의 무능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활할 정도로 유능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인이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자신 있으십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절차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채무도 변제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대답이니까 제가 오늘 이 신청서 가지고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홈플러스 포인트가 114억가량 되더라고요. 이것 만약에라도 홈플러스가 잘못되면 이 포인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114억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 신청서 관련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점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중인께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몇 가지 영업적자가 악화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여기 제시한 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 세 번째는 쿠팡과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확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게 된 것, 네 번째도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인건비 부담이 앞으로 가중이 안 됩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내려갑니까? 최저임금 내려갑니까? 이것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인으면 구조조정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증인 김광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을 기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해결 불가능한 원인인 거잖아요? 직접 최저임금 낮추실 것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고요.

○**증인 김광일** 저희한테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원인을 적시해 놓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장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닙니까? 다 팔아 버리셨잖아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전체 매장 중에서 20% 정도만 투자할 때 임대로 바꾼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수할 때 이미 임대 매장이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파셨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료 상승은 자초한 것 맞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원인으로 넣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쿠팡과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의 공격적인 확장인데 앞으로는 공격적인 확장 안 합니까, 중국계 이커머스랑 쿠팡은?

○**증인 김광일** 계속해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1·2·3번 다 해결 불가능한 원인을 적시해 놓고 무슨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광일** 그런데 회생의 원인은 단기유동성 부족이 회생의 원인이고요.

○**김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신 것을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식품 카테고리 중심으로 온오프 사업을 재편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2015년에도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하셨던 말인데 10년 동안 안 되던 게 갑자기 됩니까?

○**증인 김광일** 지난 3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편한 점포들은 평균 10% 후반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 줬습니다. 수익성도 개선됐고요.

○**김재섭 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경영 위기가 옵니까? 저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쿠팡이나 중국계 이커머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매출 나온 것을 보니까 오히려 홈플러스는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던데 어떻게 새삼스럽게 온라인 사업을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저희가 생식품 분야에서의 온라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업계 3등 정도나 4등 정도로 알고 있고요.

○**김재섭 위원** 그러면 1·2등은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어쨌든 저희도 여기서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런데 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왜 질 수 없는데 지셨어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마는 온라인 쪽은 성장률이 평균 13% 정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적자점포를 폐점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적자점포 몇 개 정도 됩니까?

○**증인 김광일**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폐점하실 거예요?

○**증인 김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부천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왜 폐점 계획 갖고 계십니까?

○**증인 김광일** 부천상동은 저희가 소유한 점포가 아닌 임차점포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임대인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고 문을 닫고 재임점하는 케이스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요. 점포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점포면적 효율화는 2015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10년 동안 뭐 하시고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또 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이번에 하는 것은 2개 층을 1개 층으로 합치는 겁니다. 온라인에 빼긴 공산품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생식품, 식품 중심으로 1개 층으로 집중해서 비용 효율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신선식품·간편식 대응 강화, 온라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인수 당시에도 먹튀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이런 경영 위기가 오고 전 국민이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슷한 해결책을 내니까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는 하루 만에 통과됐거든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력 규모 감축계획도 실행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인력 감축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지난번 1월 달에 한 부산·영남권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저희가 계획한 게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무능하고 선택적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교활할 정도로 유능한 것을 지금 이 회생절차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에 하나라도 이 회생절차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말 저희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광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김광일 증인께서 오전·오후 죽 답변을 하셨는데 ‘송구스럽다’, 제가 볼 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김병주 회장이…… 청문회가 됐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광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답변하는 방식이 너무 극히 업무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당 간사이신 강민국 간사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청문회도 개최하고 오늘 당장 여야 간 합치가 되면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두 분 의논하시고.

이어서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금융감독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LBO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모든 LBO를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내가 MBK 2015-4·3 LP를 좀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것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는 이 문제가…… 홈플러스하고 홈플러스스토어즈가 2019년도 2월에 합병을 합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20년 2월에 2차 합병을 하거든요. 1차·2차 합병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미 파악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매입 이후에 여러 가지로 리파이낸싱이나 재구조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상법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알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이 부분을 악용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검사 과정에서 검토해 보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진짜 일을 안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3.1조 인수금융을 통해서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주식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지요? 합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3.1조 부채를 져서 자기주식 홈플러스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이 방식에 의하면 현금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제삼자한테 매각 안하고 SPC 설립해 가지고 엑시트하는 방법이 다 가능해집니다. 제 말이 맞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대체, 이것도 연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말씀은 아닌데 불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구조는 가능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341조와 341조의2가 완전히 형해화됐잖아요. 상법에서의 자본 충실의무가 MBK에 의해서 완전히 형해화됐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다면 입법의 불비라는 게 보이잖아요.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제가 변명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의 불비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왜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이 합병 이후에 자본금 변천을 한번 봐 보세요. 합병 이후에 이익잉여금 3조 1000억, 자본이 3조 8000억짜리가 그다음에 자본금 6000억짜리가 자본이 1조 1800으로 줄고 자본금이 233억으로 줄어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게 자본 충실의무를 완벽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것 파악을 못 했다면 너무 웃기는 얘기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거지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조사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유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진즉 관련 당국에서,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 불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것 SPC를 통한 합병 방법으로 해서 모든 회사 주식 다 엑시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MBK가 되면.

홈플러스 대표님, 제가 말한 것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 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합병하는 과정에 이사회가 합병 동의했잖아요?

○**증인 김광일** 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유동수 위원** 거기서 홈플러스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증인 김광일** 그 당시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적자가 굉장히 심한 법인이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적자가 심한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홈플러스가 얻는 이익이 뭐냐고요?

○**증인 김광일** 저희가 배당이나 계열사 간에 차입금을 안 빌려줘도 되고요. 두 회사가 오퍼레이션을 함께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아까 금융감독원장님 상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셨는데 너무 그 가치 존경하고요. 그 소신을 존경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입니다.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럴싸하게 합병을 가장했지만.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망가진 겁니다. 3조 1000억을 빼냈는데 어떤 회사가 3조 1000억을 빼내고 나서 회생 가능합니까? 양심 있어요? 김광일 대표님, 그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대표는 아니어도 이사로 있었잖아요.

○**증인 김광일** 저희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유동수 위원** 무슨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3조 1000억을 생으로 빼냈는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참고인 서원주** 예.

○**유동수 위원** 이 합병 과정에서, 1차·2차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의사 표현을 했습니까? 홈플러스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3조 1000억 테스코가 빼 갔잖아요. 고스란히 3조 1000억의 부채를 지금 홈플러스가 안았잖아요. 연금은 이 합병 과정에 어떤 코멘트를 했습니까?

○**참고인 서원주**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동수 위원** 이건 말이지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원·금융위원회, 정말로 법비들이 컨설팅해 주면서 멀쩡한 한국 기업의 3조 1000억을 빼 가는데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사후적으로도 얘기 안 합니다. 법안을 고치자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회생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오전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홈플러스 주식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테스코가 7조 2000억을 에시트하고 일부를 MBK를 통해서 출자해 주고 MBK는 거기의 도관으로 툴로 이용됐을 확률이 크고 MBK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정도 역할밖에 못 했다 그리고 5~10년에 걸쳐서 점차 홈플러스는 자기 의도대로 망가지게 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원장님, 이런 관점에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삼부토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더 하세요. 시간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감독원장님,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을 보면서, 이게 2023년도 5월에서

7월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국토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참여하게 됐냐? 출장 관련 국토부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주최 측에서 국토부장관과 면담 시 민간 주최 측에서 구두로 국토부장관의 행사 참석 및 축사를 요청했다'. 구두로 참석 요청하면 장관이 가는 예가 있습니까, 폴란드까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토부 입장이 그렇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축사를 해 줬고요. 이후에도 보면 화상회의 개최하고 정례회의 운영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늦는 거라고 먼저 띄웁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주식 투자도 많이 해 본 사람인데요 주가의 흐름상 원희룡 장관이 바람을 잡고 엑시트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마지막 완성의 점을 찍었다 이렇게밖에 주가 흐름이 안 읽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의혹 제기를 하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것을 잘 챙겨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수 위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건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정말 경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들이 작용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구두로 참석을 요구했는데 갈 정도까지 갔다면 본인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경솔 이런 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불법성에 대해서는 한번 잘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김광일 대표님 맞은편으로 좀 가실까요?

증인,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법조인의 양심과 전문인으로서 양심이 오늘 아마 많이 충돌될 겁니다.

회사채지요, 전단채 발행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십니까, 아니면 공동대표랑 상의해서 하십니까? 결정권 누가 갖고 있어요?

○**증인 김광일** 매입채무유동화는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자금조달행위라서요 자금 담당 임원이 늘 하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보고는 받으시지요?

○**증인 김광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회생절차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전단채 발행에 사기성이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단초기 때문에 그립니다. 본인 법조인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2월 26일 날 재심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실무자로부터 재심에 대한 결과는 보고받았을 거고요. 그렇지요? 아까 27일 날 18시경에 최종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셨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재심에 대한 결과는 27일 날 받은 거지요, 27일 6시에요.

○柳榮夏 위원 6시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것 받고 난 다음에 혹시 김병주 MBK 회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용등급이 하락된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증인 김광일 내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본인이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제가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다음에 2월 28일 날 김관기 변호사 미팅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김관기 변호사 회생전문 변호사인 것 맞지요?

○증인 김광일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변호사 미팅할 때 변호사 선임 결정은 본인이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제가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2월 28일과 3월 1일 사이에 앞으로 이게 회생절차로 갈 건지 다른 걸로 갈 건지 검토를 해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3월 3일 날 12시에 변호사 선임 계약이 됐거든요. 이 선임 계약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선임 계약은 제가 결재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3일보다 좀 앞인 것 같은데 왜 그 날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사회가 21시, 밤 9시에 열렸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 이사회 중에 MBK 관련된 이사가 몇 분 계시지요,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 김광일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2명만 빼놓고는 MBK 측…… 아, 3명입니다. 조 대표님까지 3명 빼놓고는 MBK 측 인사입니다.

○柳榮夏 위원 증인, 그때 이사회에 올릴 때, 물론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 작성은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사회가 열리면 이사들한테 무슨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생절차 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사들한테 제공한 자료가 뭐니까?

○증인 김광일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요.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검토했잖아요, 의장으로서.

○증인 김광일 저는 계속 연휴 내내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가 뭐냐고요.

○증인 김광일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기억을 하기 어렵다?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당시 이사회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증인 김광일 이사회는 저희가 모여서 하지 않고요 개별 이사별로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난 다음이든 전이든, 아까 저희한테 제출한 이 개시신청서를 보셨지요?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증인 김광일 예,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개시신청서에 증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것도 기재된 것 보셨지요?

○증인 김광일 예,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두 번째 재무상황표 띄워 주세요.

증인, 홈플러스가 2월 말 결산법인이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비상장법인이라서 이번 5월 달에 아마 2024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저것 보시면요, 2015년도 홈플러스 인수 때부터 지금까지 증인이 여기 관련돼 있었는데 2013년 자본을 한번 보세요. 2조 2958억에서 2023년 2653억으로 무려 2조 원의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증인이 이 회사의 경영을 맡았다 그러면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유능하든지. 이런 분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일단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증인 김광일 수치가 좀 잘못된 것은 말씀…… 그냥 넘어갈까요?

○柳榮夏 위원 제가 받은 것은 금융감독원……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만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柳榮夏 위원 괜찮습니다.

○증인 김광일 14년과 23년 사이에 회계기준이 바뀌어서요 14년도에는 우선주가 자본에 들어갔고요 23년도에는 우선주가 부채에 들어갔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 김광일 그래서 저게 줄어든 건 맞지만 한 1조 4000억, 5000억 정도가……

○柳榮夏 위원 1조 4000억, 5000억 줄어들어도 자본은 줄어든 것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1조 4000억, 5000억으로 준 것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까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을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모펀드, 특히 헤지펀드가 문제되는 건 이런 거지요. 저 평가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현금과 유동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인수해서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요. 그래서 인수한 기업을 아주 껍데기로 만들지요. 요새는 나아가서 기업분쟁에도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증인이 관리하는 MBK 파트너스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에서 아마 엑시트할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 1조 2000억 대출 있지요? 3000억입니까, 2000억입니까?

○**증인 김광일** 1조 3000억.....

○**柳榮夏 위원** 이게 2024년 8월 달에 리파이낸싱을 해서 한 것 맞지요? 그때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8% 아닙니까?

○**증인 김광일** 24년 5월 달에 했고.....

○**柳榮夏 위원** 이율 몇 프로입니까?

○**증인 김광일** 8%였습니다.

○**柳榮夏 위원** 8% 맞지요? 자산 4조 7000억 부동산 전부 신탁회사에 넣어 가지고 수익권을 갖고 있지요? 메리츠가 1순위 갖고 있는 것 맞지요?

○**증인 김광일**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메리츠가 이것을 담보가치를 실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겁니다. 그러면 MBK는 그 비난의 화살을 메리츠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메리츠가 채권자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방향을 틀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리스부채가 대충 3조 80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리스부채요.

○**柳榮夏 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는데 이게 금융채무인지 상거래채무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회생법원에서.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금융채무로 된다 그러면 임대료가 동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채권을 갖고 펀드 만든 펀드회사들 투자자들 다 손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두세 달 내에 개별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柳榮夏 위원** 이게 만약에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손실이 없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증인 김광일** 아니, 금융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柳榮夏 위원**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차 좀 띄워 주세요.

이 차 기억나십니까, 부회장님? 기억나시지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앞에 있는 첫 번째 페라리가 페라리 296 GTB지요? 이것 한 4억 정도 갈 겁니다. 두 번째 까만색 페라리가 812 컴페티치오네지요? 이게 한 6억대 갈 거고요. 세 번째 페라리 이게 한 5억 5000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증인의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오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이게 명의가 어디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캐피털사입니다.

○柳榮夏 위원 캐피털사.

이것 말고 슈퍼카가 더 있지요? 한 27대 더 있지요?

○증인 김광일 그렇진 않고요, 좀 더 있긴 합니다만……

○柳榮夏 위원 그것은 지금 성수동 포레스트 아파트에 주차돼 있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몇 대 있어요, 그게? 몇 대 있어요?

○증인 김광일 십여 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하남에 주차장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증인 김광일 주차장 짓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짓고 있지요. 이게 8월 달에 완성되면 이 차들 전부 그 주차장으로 옮길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이 차량 이동할 때 컨테이너로 옮기지요, 운전 직접 안 하고? 기사가 직접 운전 안 하고 컨테이너로 옮기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柳榮夏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운행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짓거리 왜 하는지는 증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도로 부도덕한 거예요, 그대들이. 아시겠어요?

○증인 김광일 송구합니다.

○柳榮夏 위원 이게 송구하다고 끝날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증인한테 오늘 회생절차 경위를 물은 것은 변호사 선임 과정이 미리 준비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히 증인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앞으로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했다는 그 단초를 제가 묻고 싶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질문한 거예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 위원 김광일 증인, 아까 오전 질의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통해서 아직 배당이나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좀 저는 말장난 같은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MBK가 배당이나 이자 때문에 투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회사의 마지막을 다 털어서 남는 것을 거의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무슨 배당이나 이자를 보고 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부채 비율 3200%에서 1800%로 감소한 이유 물었더니만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재평가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MBK가 제가

보면 흠플러스의 벤류업, 지금 제가 본 건 하나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자산재평가 통해서 숫자놀음해 가지고 유동성만 계속 뽑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보니까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이나 펀딩, 곧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수치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나오는 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흠플러스의 적자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게 훨씬 더 큩니다. 흠플러스의 적자는 평균 2000억 정도예요. 하지만 이자비용은 MBK가 맡은 다음부터 2500억 정도의 임대료나 이자비용 증가했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지금 흠플러스는 적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자산재평가 통해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리파이낸싱해 가지고 지난 5월 메리츠에서, 이것도 뉴스에는 1.2조다 1.3조다 해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자비용이 줄겠습니까?

다음 꼭지, 일반적인 기업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경영 합리화를 하는 게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수익성이 나쁜 자산을 처분해서 금융비용 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낮추는 것 이거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비수익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낮추고 수익성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흠플러스는 정반대로 한 기록들만 다 찾았어요. 우량점포까지 다 대량 매각을 했거든요. 임대매장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임대료 발생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경비가 올라가잖아요.

우량점포는 팔기가 쉽지요. 살 사람이 많으니까 현금화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영을 하려고 했다면 우량점포를 이렇게 쉽게 팔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업을 회생시키는 씨감자 역할을 하는 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려고 우량점포까지 다 서슴없이 매각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메리츠에 2500억 조기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것은 의무네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이강일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에 갚아야 될 게 2500억이 있는 거네요.

○증인 김광일 그중에 일부 상당 부분, 800억 이상 갚았고요.

○이강일 위원 2500억에 800억이 어떻게 상당 부분입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 김광일 그다음에 두 건 더 부동산 매각 클로징이 있어서 800억~900억이 또 갚아집니다.

○이강일 위원 이제 갚을 거지요.

오늘 참고인으로 신평에서 여러 분 나오셨는데 이재홍 참고인, 신용평가에 2025년 6월에 갚아야 될 이 금액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했습니까?

김기범 참고인, 반영됐습니까?

○참고인 김기범 예, 반영돼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재홍 참고인은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신 겁니까?

○참고인 이재홍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 저희 평가 내용에는 향후 부채가 도래할 그런……

○이강일 위원 평가에 반영됐다는 겁니까?

○참고인 이재홍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일 증인, 명함 지금 몇 개입니까?

고려아연에도 임원 등기가 돼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건 18개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비슷합니까?

○증인 김광일 그중에 투자목적회사가 절반이어서요.

○이강일 위원 어쨌든 간에요 18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외법인에도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증인 김광일 해외법인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이강일 위원 MBK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증인 김광일 그 정도 됩니다.

○이강일 위원 대표이사 맡고 있는 건 홈플러스가 유일하고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홈플러스 직원 2만 명 왔다 갔다 하고요, 임차인도 몇천 곳이고요 채권자도 몇천 곳입니다. 무게감을 좀 체감하셔야 되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김광일 증인, 공인회계사하고 사법고시 해서 20년 동안 M&A 주도하셨지요? 재무통이지요?

○증인 김광일 예.

○이강일 위원 조주연 공동대표도 맥도날드에서 10년 일했는데 맥도날드가 유통업체라고 보기가 쉽지 않지요. 이거 서비스 업체지요? 이런 분들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밸류업과 관련되는 홈플러스의 제대로 된 정상화를 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팔아 치우는 헤지펀드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남을까? 이거 뻔합니다. 이 사람들 다 돈 빼 가지고 수익 보고 나가게 되면 홈플러스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던 노동자가 남겠지요. 거래업체가 남습니다. 그리고 입점 점주하고 그 가족들 눈물 흘릴 일만 남은 겁니다. 네파·딜라이브·영화엔지니어링, MBK로 인해서 해체·분해된 기업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의 순기능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먹어야 될 자리에 밥은 그대로 있는데 책상 위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사모펀드가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거지요? 이거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요.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오너 경영 견제할 수 있다, 아주 일부적인 긍정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계기업에는 사모펀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유동성이 막혔던 걸 일시적으로 풀어내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이 간혹 나올 뿐이지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상업회사입니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얼마나 있을까요? 홈플러스가 한계기업 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벤처업에 신경 쓰셔서 살린다면 아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 홈플러스를 제대로 살리는 쪽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보고 이 시야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김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다음에 추가 재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재보충질의하신다고요?

○**이강일 위원** 예, 할 겁니다.

○**박상혁 위원** 끝났어요. 3분 다 했잖아요?

○**이강일 위원** 3분? 안 쓴다니까. 재보충질의하겠다니까.

○**박상혁 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났어요.

○**이강일 위원** 3분까지 다 했다고? 나만 안 했어?

○**강준현 위원** 예, 이어서 해요.

○**유동수 위원** 3분을 더 하라고.

○**이강일 위원** 3분 조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3분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마무리하시라고요.

○**이강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어요.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말 또 하셨는데요. 이거 최상목 대행에게 직접 건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습니까? 한번 직접 건의하셔야지요. 의향은 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하고 옛날에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호나 아니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편셋 규제를 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거꾸로 하자고요.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에서 기업 오너나 기업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편셋으로 구제하는 법안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혼란은 민주당 측에서 정책 이슈가 되는 것들을 너무 정쟁적으로 취급하셨다고……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쟁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이렇게 혼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기업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듣고 사실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법한 이슈인데……

○**이강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형사화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같이 손대지 않고서는 사실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상법 개정이 전제되는 한에서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를 같이 논의하자,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같이 논의해야지요. 상법 개정만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도 한마디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자영업자 수가 2개월 전보다 20만 명 이상 줄었어요. 매달 10만 명씩 지금 줄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은 불법 계엄보다 더 심각한 게 배달 중개 수수료가 지금 결정타입니다.

본 위원이 속한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상생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상생협의체안을 발효하다 보니까 그것을 애들이 자꾸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배기업인 배달의민족,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안 이것을 최저점으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수익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세요. 울트라콜 폐지했어요. 그리고 포장주문 수수료를 유료화시킨다고 선언했습니다, 6.8%. 없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수수료를 징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독과점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장관이 이익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짧게 얘기하면 기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장관의 무능을 질타해야 되는 문제로 가는 거고요.

1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삼부토건 주가가 404원까지 떨어졌다 조금 복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몇 명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보세요. 5500원으로 올라갔던 주식이 12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점을 전환해서 개인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혹이 다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결부 돼서 나오고 자꾸 누군가 특정 이름들이 계속 리피트(repeat)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혹을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빠른 조사가 필요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시켜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길게 못 하겠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사실관계를 저희가 밝히는 노력을 할 텐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법 이슈도 그렇고 이 삼부토건 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정책 이슈로 추진해야 되는 것 또 정상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솔직히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정쟁화돼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정무위는……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자본시장법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이강일 위원** 그러면 상임위 좀 열어 가지고 하게 할게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진작에 그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제가 벌써……

○**이강일 위원** 지금 나도 답답해요! 상임위가 안 열리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시고.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장 답변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배달앱 관련해서 상생안이 막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울트라콜 폐지 문제, 포장수수료 징수 문제 저희가 지금 예의 주시하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시행이 되면 못 막으니까, 포장수수료 받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그 것은 막고 시작을 해서, 일단은 시행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부분……

○**이강일 위원** 이거 뒤집어집니다. 저까지 이제 막 단식 나갈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로만 하시지 말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소비자들 불만이 많아요.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도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다 비용 부담하는데 무료배달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직 조치 못 한,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건데도 아직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문제도 이강일 위원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금감원장님께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야 의혹이 살이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금감원장님, 상법 관련해서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운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항의 방문 갔을 때 관련 자료 보니까 9시 40분에 업무협약식 갔더라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죄송합니다.

○강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 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최소한 저한테라도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혀탕을 안 치지요. 앞으로 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고, 조금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강준현 위원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 죽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첫 번째가 MBK가 보면 운용보수나 성과보수를 통해서 지금 홈플러스를 손실 처리해도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 같아요. 이것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습적인 회생 신청,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PPT를 안 띄워 드렸는데 옛날에 LIG나 동양그룹 사태와 지금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기죄,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이것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총체적으로 보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MBK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재 출연이 됐든 아니면 고려아연이든 뭐든 기존의 주식을 매각하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위원장님이 공과 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모펀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죽 들어 보니까 이것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말씀 주신 세 가지 사항들 저희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법원이나 다른 관계기관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도개선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이강일 위원님 1분 넣어 주세요.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두 신평사에서 MBK가 메리츠에 갚아야 될 2500억 조기상환 의무에 대해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받은 자료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평가에 어떻게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근거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두 신평사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꼭 해야 된다고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강준현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의사결정?

그러면 나도 조금 지적을 하고.

김광일 부회장님, 잠깐 다시 나와 보세요.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김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요구하고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한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의 부채 비율하고 최근의 부채 비율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작년 연말에 1400%가 넘었고 작년 초에는 30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부채 비율을 462%로 낮췄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김광일 예, 여전히 상환전환우선주는 맞는데 상환의 조건을……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쓴 거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도 사실 예상하고 있었겠네요?

○증인 김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에서는 뒤에 계신 두 분 김기범 대표님하고 이재홍 대표님, 이렇게 부채 비율이 3000%, 1400%에서 400%로 내려오면 이게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지요?

○참고인 김기범 부채 비율이 내려오면 좋은 현상인데요. 일단 신평사로서 저희 의견은 이 부채 비율이 이미 등급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 자체가 준 것처럼 보이고 자본금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이 부채는 기존에 있던 차입금이 다 상환된 다음에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용등급에 자본화된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신영증권 대표님, 증권사에서도 채권 판매할 때 부채 비율 이렇게 줄어든 게 반영이 됩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는 2500억 반영을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작년 2월 달에 3200%, 작년 11월 달에 1408%,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462%로 부채 비율이 줄었어요. 그게 상환주나 우선주의 상환 조건만 바꾸어 가지고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숫자만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신평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고인 김기범 예,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 윤한홍 증권회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금정호 저희는 정기 평정에서만 알 수가 있고요.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일반 단기채권을 사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증인 금정호 그러니까 차입금 현황이나……

○위원장 윤한홍 부채 비율만 보는 것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갑자기 3000%에서 1400%가 되고 1400%가 460% 됐어요. 작년 연말에 1400%였던 게 올 1월 달에 460% 됐다고. 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부채 비율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금정호 예.

○위원장 윤한홍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평이나 기업 평가하는 분들은 신용등급을 낮추고.

○참고인 김기범 저희가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적인 거고요.

○위원장 윤한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듣고 지금 판단하는 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단기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참고인 김기범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판매하는 증권사에서 그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내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MBK는 이미 이렇게 부채 비율을 바꾸기 위해서 회계 숫자를 바꾼 것 아니에요, 조건을. 그렇지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바꾼 것 아니냐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 김광일 저희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조건을 바꾼 것은 25일 예심 결과를 받고 26일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26일 오전에 상환의 조건을 변경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채 비율이 이렇게 1400%에서 460%로 1000%가 내려갑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부채 비율이. 1000%가 내려가면 단기금융채권을 사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고요. 개인투자자가 산 그 금융채권 금액이 1970억, 이것을 지금 회생법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MBK가 먼저 변제하겠다고 신청하면 조기변제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광일 부회장님은 여기에 끝까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 끝까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변제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변제를 신영증권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신영증권이 변제하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증인 김광일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그 의견서 전부를 제가 다 보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거고요. 법원에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저희가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좋습니다.

○증인 김광일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채 비율은 외부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평사의 마지막 심사에 저희가 보고한 것뿐입니다. 공표된 것은 이번에 회생 신청되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도 이 자료가 전산으로 확인을 해 보면 다 나와요. 그 채권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회생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회생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지요?

○증인 김광일 회생계획은 6월 2일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그러면 지금 MBK는 회생에 성공을 하면 좋고 실패해도 손해는 없지요?

○증인 김광일 아닙니다. 공동투자가들은 본 건에만 2조 이상을 투자했는데 전혀 회수를 못 하고 지금 손실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윤한홍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MBK가?

○증인 김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회생의 의지가 강력히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이것 회생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오늘 내용이 다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회생계획 제출되기 전에 양 간사님이 의논해서 청문회를 한번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김남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잠깐만.

간사님들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지적과 질의와 당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청문회 하는 걸로 양 간사님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날짜를 별도로 의논해서 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결론을 그것까지 내겠습니다. 그것까지 내고, 청문회를 할 때 또 MBK하고 홈플러스에서 피해대책이라든지 자구책이라든지 수습책 어떻게 낼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김남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1분만.

○김남근 위원 오전에는 간사들끼리도 합의가 돼서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오후에는 고발을 안 하기로 한 것인지 한번 좀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발 조치까지 해 놓고, 그래야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청문회 나오면 그때 고발을 취하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발 조치도 안 하면 청문회에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 우리 의논도 했지만 일단 수습책 자구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청문회 때 우리가 증인을 다시 채택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때 만약에 안 나오면 고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의논을 했으니까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간사님.

○강민국 위원 여야 간사끼리 의논을 했고요. 오늘 MBK 증인이 충분한 수습대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미흡한 또 사실상 전무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봤고.

김병주 회장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청문회 때 증인을 또 신청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순서대로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창민 위원님, 시간을 몇 분 드릴까요?

○한창민 위원 그냥 5분 그대로. 그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요.

○위원장 윤한홍 5분 드리세요.

다 끝내 주세요.

○한창민 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세요.

○한창민 위원 자료 요구. 홈플러스 주식회사 관련해 가지고요 2015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 폐점·매각한 매장들의 매각금액 총액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매각 후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각의 매각금액과 임차료 등등의 재정 상황 그리고 현재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매장 현황 그리고 MBK 파트너스 인수 이전부터 현재 까지 제삼자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운영하는 매장 현황과 임차료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한국리테일 주식회사 그리고 한국리테일투자이호 주식회사 간의 RCPS 계약 현황 등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광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의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창민 위원 먼저 김광일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홈플러스 고용 상태를 아예 모르고 들어오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자료입니다.

2015년 MBK 인수 이후로 2024년까지 10년 동안 직접고용은 6465명, 간접고용은 4921

명, 합쳐서 1만 13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저강도 구조 조정이 시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노동 상황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또 다른 고강도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도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광일** 구조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정확하게 없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 쌍용자동차 그리고 2017년 대우조선 사태에서도 봤듯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에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지금 증인께서는 구조조정 방안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회생절차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방안,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관건은 저희 채권자들하고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향은 없는데 채권자들과 회생법원에서 구조조정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지요?

○**증인 김광일** 최대한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구조조정이 없는 회생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창민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다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용현황 변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구조조정이 저강도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희망퇴직 명분이든 아니면 새롭게 충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그래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다른 마트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회생절차 과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 할 경우에는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들을 살릴 의향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각오,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은 말 그대로 김병주 회장과 더불어 가지고 28% 정도 MBK 주식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고요, 홈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정말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끼는 회사 그다음에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사재 출연을 얼마든지 해서 정상화시키겠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현정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모호하게 답변하고 끝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인 김광일** 구조조정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재정 때문에 구조조정 요구가 있을 때는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경영 정상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답변은 해 주십시오.

○**증인 김광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민 위원** 청문회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구조조정이 없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채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전단채 규모 4600억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정확히 숫자 끝자리는…… 4300억인가 그렇습니다.

○**한창민 위원** 46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번 피해 사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국회 간담회나 피해자들 관련해 가지고 면담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증인 김광일** 예, 전혀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오전에도 김남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정무위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얘기한 것 보면 눈물 납니다. 노후자금, 자녀 결혼식 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받을까 봐 경영자금 넣어 가지고 단기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상거래채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 보전받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막막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늘 증인 답변을 보면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요.

1분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육성으로 하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육성으로 할게요.

이번 유동화 전단채 본질을 보면 상거래채권의 성격이 있는 것 이제는 확인하셨지요, 몰랐다 하더라도?

○**증인 김광일** 예, 상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회생법원에 상거래채권으로 해 달라는 신청, 그것도 답변 안 하셨는데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김광일** 회생법원에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명확하게 상거래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은 마치고, 다음에 청문회 때에는 이 관련된 답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방안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승 위원님은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李憲昇 위원** 계속 김광일 증인께.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현승 위원님 먼저 하시고, 민병덕 위원님은 저쪽으로 자리옮겨서 하신답니다.

이현승 위원님 먼저 하세요.

3분 드릴까요?

○**李憲昇 위원** 예.

김광일 증인,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실현에 있는 것 맞지요?

○**증인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향후 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이행을 안 했지요?

○**증인 김광일** 2년에는 못 했지만 회사가 1조 투자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MBK가 인수하고 나서 홈플러스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가 됐는데요. 경영 개선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인수 후 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28개 점포 또 물류창고를 팔아 치우면서 4조 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챙겨 가지고 차입금 상환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9개 매장 폐점 및 세일 앤드 리스백, 매각 후 재임차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추가로 9개 매장을 폐점 내지는.....

○**증인 김광일** 그게 이미 매각계약이 체결돼 있고요. 1년 뒤에 폐점하고 개발되면 재임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경영구조 개선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산 매각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가야점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정말 탄탄하게 운영되고 매출도 잘 이루어지고 또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서로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참 잘되고 있었는데 21년도에 갑작스럽게 폐점이 결정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직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유통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점포 폐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증인 김광일** 첫째, 점포 폐쇄할 때 직원들은 전부 다 고용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직원들이 실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이 기준이 땅값이 비싼 것부터 우선적으로 매각한 것 같습니다.

점포를 폐쇄할 때 장기적인 성장가치라든지 임직원 실직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외에도 MBK가 인수했던 영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딜라이브, 롯데카드, 네파 등 MBK의 무자비한 펀드 운용이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윤리경영·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 채권단, 협력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고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추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분만 더 드리세요.

○**李憲昇 위원** 또 연기금·공제회의 투자금이 들어간 펀드의 경우에 운용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 가지고 펀드 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가치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증인,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와 윤리경영, 책임경영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광일** 예, 윤리경영·책임경영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만 나와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이니까 3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중요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물었더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무자 홈플러스에서는 상거래채권으로 하겠다라고 아까 답을 하신 거지요?

○**증인 김광일** 법원에 문의하겠다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법원에서……

○**민병덕 위원** 그것 대답한 것 아니에요?

○**증인 김광일** 법원에서 부장님하고 미팅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결론이 안 났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채무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증인 김광일** 법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병덕 위원** 상거래채권으로 할 겁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증인 김광일** 법원에서 그리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병덕 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까 서면으로 봤잖아요. 상거래채권이냐

에 대해서는 채무자 흠플러스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광일** 위원님, 송구한데 제가 진짜 그 의견서를 다 못 봤고요.

○**민병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광일** 제가 지난주에 법원 부장님하고 미팅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병덕 위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이라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재를 넣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잠깐 멈춰 주세요.

금감원장님, 오전에 윤한홍 위원장님 말씀에 삼부토건 사건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김건희·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든 협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데 이 두 사람은 단정적으로 협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명구 위원님 질의에 원희룡 장관은 삼부토건의 참석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국토부차관이 포럼 4일 전에 삼부토건 만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알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민병덕 위원** 3월 5일 날 국장님이 제 방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협의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찾아갔더니 원장님은 안 계시고 수석부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임의수사하다 보니까 위법성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감원 조사 과정들을 금융위와 검찰에 보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것은……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일관된 의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불공정거래 조사 이슈를 자꾸 정쟁 이슈로 말씀하시고 정치인에 대해서 항상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덕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삼부토건을 누가 정쟁화시켜요? 삼부토건을 우리가 찾아냈습니까? 당신들이 못 찾아 가지고 우리가 제기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게 구성

요건도 못 찾았고 임의수사니까 위법성 확인도 못 했다면서 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정치인 관련된 모든 사건이 그 정치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수사면 지금 그 수많은 정치 테마주들은 다 그러면 여당 대표님, 야당 대표님과 관련된 불법행위입니까?

○**민병덕 위원**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왜…… 원희룡,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의혹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건 됐고요.

금융위원장님, 증거인멸 시간을 이렇게 벌어 줘도 됩니까? 6개월, 3개월 동안 시간 줘야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

○**민병덕 위원** 그래서 상설특검에도 삼부토건이 들어가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권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방탄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상법 개정도 그렇게 다루셔 가지고 지금 정쟁화되어 있는 건데 왜 불공정거래 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이거랑 상법 개정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양반아, 상법 개정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야!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민병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병덕 위원** 상법 개정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삼부토건이 어떻게 정쟁이야? 6개월 동안 뭐 했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위원님, 왜 반말로 하십니까?

○**민병덕 위원** 미안해요.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아니, 본인의 부하들이 그동안 못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감위나 검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갖고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민병덕 위원** 왜 갑자기 상법 개정을 들고나와요?

---

○**위원장 윤한홍** 열심히 일하는 금융감독원을 그렇게 폄훼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전산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증거인멸이니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본인들이 증거인멸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벌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하시고.

김현정 위원님, 또 못 한 게 있습니까?

1분만 드리세요.

○김현정 위원 금융위원장님, MG손보 매각 지금 메리츠에서 철수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19일 날 금융위·감독원·예보가 이례적으로 공동입장문 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맞는데, 노조 반대로 실사가 무산됐다 이런 것들을 입장문에 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 국면이 부실보험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금융위도 쉽지는 않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들하고 직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오히려 부실기관 관리기관에서는 고객들하고 직원들이 좀 안심될 수 있도록 매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멘트로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김현정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를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

**참고인 명단**

참고인(4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신청요지 및 신청이유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3. 18.(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관련 등
최철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재홍	한국신용평가 대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출석 위원(2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전현희 한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기획조정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 이세훈  
 부원장 함용일  
 부원장 김병칠

**○출석 증인**

김광일(MBK 파트너스 부회장 /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신영증권 사장)  
 강경모(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출석 참고인

김근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철한(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재홍(한국신용평가 대표)  
김기범(한국기업평가 대표)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